



튀니지

KOTRA 알제 무역관 작성



KOTRA COUNTR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튀니지

KOTRA 알제 무역관 작성

KOTRA COUNTR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I. 국가 일반	2
1. 국가 개요	2
2. 정치·사회동향	4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11
II. 경제	15
1. 경제지표 DB	15
2. 경제동향 및 전망	16
3. 주요 산업동향	20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8
III. 무역	29
1. 수출입동향	29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1
3. 수입규제제도	36
4. 대한 수입규제동향	39
5. 관세제도	39
6. 주요 인증제도	41
7. 지식재산권	41
8. 통관절차 및 운송	41
9. 시장 특성	48
10. 바이어 발굴	49
11.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0
12.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51
13. 수출 시 애로사항	52
IV. 투자	53
1. 투자환경	53
2. 투자 인센티브제도	58
3. 외국인 투자동향	60
4. 한국기업 투자동향	62
5. 한국기업 진출현황	63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64
7. 주요 투자법 내용	65
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65
9. 노무관리제도	66
10. 조세제도	68
11. 금융제도	68
12. 외환제도 및 자금조달	69

V. 비즈니스 참고정보	71
1. 물가정보	71
2. 비즈니스 에티켓	73
3. 이주정착 가이드	74
4. 생활여건	75
5. 취항정보	78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79
7. 관광/호텔/식당/통역	82
8.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85
9. 유관기관 웹사이트	87
10. KOTRA 무역관 안내	88



자료원: CIA

1.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일반 사항

국명	튀니지(Republic of Tunisia)
위치	북부 아프리카 중앙지중해 연안, 남쪽으로는 리비아 서쪽으로는 알제리가 위치
면적	162,155km ² (한반도의 3/4)
기후	북부 및 북서부 연안(지중해성 기후), 내륙 및 남부(사막성 기후)
수도	튀니스(Tunis)
인구	1,150만 (Countrymeters 자료)
주요 도시	도시 집중인구(67.7%): 튀니스(100만 3,000명), 스팍스(94만 5,000명), 수스(62만 2,000명), 카이루양(56만 5,000명), 가베스(36만 6,000명), 비제르트(55만 2,000명)
민족(인종)	아랍인(98%), 유럽계(1%), 유대인 및 기타(1%)
언어	아랍어(공용어), 불어(상용어) 인구의 대다수가 불어를 유창히 사용
종교	이슬람(99%) 카톨릭, 유대교
건국(독립)일	1956년 3월 20일 프랑스 보호령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공화제(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원수	대통령: Béji Cad Essebsi 총리: Youssef Chahed
입법부	제헌의회

자료원: EIU country report(2017년 6월 확인자료)

2016년 경제지표 DB

GDP	417억 400만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1.2%
1인당 GDP	1만 1,737달러 (구매력지수 반영)
실업률	15.5%
인플레이션	3.7%

화폐단위	TD(Tunisian Dinar)
환율	US\$ 1 = 2.15 TD
외채	289억 2,400만 달러
외환보유고	59억 4,100만 달러
산업구조(GDP by Supply)	서비스업(43.2%), 제조업(42.8%), 농업(1.2%), 관광(12.8%)
교역규모	수출(135억 6,900만 달러), 수입(183억 7,400만 달러)
교역품	수출: 섬유제품, 전자부품, 에너지, 가죽제품, 올리브 오일 수입: 석유 및 부산물, 섬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주1: 2017년 6월 기준 EIU 추정치 최신자료

주2: 환율과 실업률은 연평균 기준

주3: 1인당 GDP는 PPP(구매력평가)기준

자료원: IMF, EIU

한 - 튀니지 관계

체결협정	사증면제협정(1969년), 투자보장협정(1975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8년)
교역규모	2016년: 1억 5,300만 달러(수출), 5,399만 달러(수입) 2015년: 1억 8,366만 달러(수출), 5,055만 달러(수입) 2014년: 2억 787만 달러(수출), 1억 2,190만 달러(수입)
교역품	수출품: 자동차, 철도차량, 기계·컴퓨터, 플라스틱, 광학기기, 유기화합물, 철강제품, 전기제품, 필라멘트섬유, 고무제품 등 수입품: 석유·석탄, 의류, 알루미늄, 어류, 전기제품, 편물의류, 광학기기, 가죽류, 가죽제품, 동(구리), 기계·컴퓨터 등

자료원: 수출입무역통계, 무역통계분석, 수출입통계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역사 기술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튀니지는 1957년 공화제로 이행해 브루기바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브루기바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집권했으나 1987년 당시 수상이던 벤알리에 의해 축출됐다. 이후 벤알리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벤알리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근대화·서구화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주의 운동, 이슬람 과격주의 운동을 탄압,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다.

2010년 12월 17일 26세 대졸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튀니지 중부 시디 부지드 지역에서 청과물 노점 운영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된 뒤 분신자살을 기도하면서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됐다. 23년간 집권한 벤 알리 전 대통령이 물가상승과 실업률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에 밀려 2011년 1월14일 사우디 아라비아로 피신한 뒤 여야 통합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과도정부는 튀니지의 정치,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사범 전원 석방,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리그’의 활동 제한 조치 철폐, 언론자유 보장을 내세웠으나, 간수치 총리를 비롯한 구세력이 요직을 차지하자 시위가 지속됐다. 서구 언론과 네티즌들은 튀니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 자스민의 이름을 따 이들의 거사에 ‘자스민 혁명’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됐다.

대통령 탈출에 따라 메바자 하원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했다. 야당지도자를 포함한 신 내각이 출범했으나 각료 중 9명이 벤알리 정권에서 각료를 역임한 인물들로 국민의 불만은 수습되지 않자 간수치 수상은 2012년 1월 27일에 각료를 대폭 교체했다. 이에 따라 전 정권 각료 중 3명만 포함시킨 개조내각이 탄생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을 질질 끈 헌법 작성 작업이 끝나고 새 헌법 상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의회 선거가 2014년 10월 26일 치러졌다. 총 의석은 217석으로 모두 정당명부제로 선출됐다.

선거 결과 벤 알리 시절 집권여당인 입헌민주연합(RCD) 출신 인물들을 포함한 사업가, 전문직 노조 및 튀니지 전국노조, 세속/자유주의 세력으로 구성된 ‘튀니지의 외침(니다투니스/Call of Tunisia, Nida Tunis)’가 원내 1당으로 떠올랐다. 튀니지의 외침은 총 37.56%의 표를 얻어 85석을 차지, 217석 의석 중 39.17%를 차지하게 됐다. 튀니지의 외침은 집권당이던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 엔나흐다(69석)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제1당이 됐다. 튀니지의 외침은 벤 알리 독재정권 당시 중요 인물들과 반대파, 좌파와 중도우파가 섞인 정당으로, 최대 라이벌인 엔나흐다의 이슬람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니지는 여전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목표지로서, IS부대가 이웃국가인 리비아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외국들의 조력으로 지하드부대 주둔지를 파악하고 폐쇄시키는데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하지만, 모든 테러위협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실한 사회 복지제도로 인해 인권과 관련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청장년층들을 극단주의자로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2012년 2월 1일에는 신 정부 최초의 각료회의가 소집돼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 대해 협의했다. 야당 PDP의 당수인 나지브셰비 등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됐다. 2012년 10월 23일 치뤄진 제헌의

회 총선에서 튀니지 등록유권자의 90%가 투표해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217석으로 구성되는 제헌의회는 새 헌법을 마련하고 2013년 실시될 총선과 대선 때까지 튀니지를 이끌 과도정부 수반을 지명한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공화의회당 당수인 Moncef Marzouki이나 벤알리 시절에 비해 상징적인 지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 90석을 차지해 1당에 오른 엔나흐다(Ennahda)당은 혁명으로 물러난 벤 알리 전 대통령 시절 탄압으로 와해됐으나 선거를 통해 부활했다. 한때 엔나흐다당은 앞으로 모든 튀니지인의 평등을 존중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나흐다당은 세속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인 공화의회당(CPR), 중도좌파를 표방한 에타카톨당(Ettakatol), 진보민주당(PDP) 등과 연정을 구성할 것을 예고했으며, 터키의 온건 이슬람 정당인 정의개발당(AKP)을 모델로 삼는 민주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2019년까지는 선거가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벤알리는 지난 2011년 1월 권좌에서 축출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으며 튀니지 정부의 송환 요구에 사우디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 벤알리는 부정부패 혐의로 35년형, 무력 시위 진압 혐의로 20년형을 선고 받는 등 총 8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다. 주요인사

- 대통령: Béji Cad Essebsi
- 수상: Youssef Chahed
- 법무부 장관: Ghazi Jeribi
- 내무부 장관: Hédi Majdoub
- 국방부 장관: Fahat Horchani
- 경제금융부 장관: Lamia Zribi
- 외무부 장관: Khemaies Jhinaoui
- 재무부 장관: Fadhel Abdelkefi
- 에너지광물재생에너지부 장관: Heka Cheikhrouhou
- 농수산부 장관: Samir taieb
- 산업통상부 장관: Zied Laadheri
- 공공행정부 장관: Youssef Chahed
- 통신기술부: Maarouf Anwar
- 교육부 장관: Slim Khalbous
- 보건부 장관: Samira Merai
- 교통부 장관: Anis Ghedira
- 노동부 장관: Imed Hammami
- 종교부 장관: Ghazi Jeribi
- 청소년, 운동부 장관: Majdouline Hinges
- 고등교육과학부 장관: Slim Khalbous
- 관광부 장관: Selma Elloumi Rekik
- 문화부 장관: Mohamed Zine el Abidine
- 환경부 장관: Riadh Mouakhar

라. 외교관계

튀니지는 아랍국가들 중에서 온화하면서도 현실주의노선을 선택했으며, 따라서 아랍 국가들뿐 아니라 서방국가들(특히 EU)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슬람 온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튀니지는 또한 중동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아랍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 대표를 본국에 초청했다. 이는 인접한 아랍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유엔 및 AU(아프리카 연합)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문제에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친 서방정책으로 인해 EU와의 관계가 개선돼 정치 불안 속에서도 더 많은 국제적 원조가 기대되며 앞으로 유럽과의 관계뿐 아니라 걸프 지역을 포함한 중동지역까지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걸프연합의 경우 튀니지에게 중요한 원조의 원천이 될 것이다.

마. 최신정보

정치동향

2014년 10월 26일 총선 이후 튀니지는 2014년 11월 23일 치러졌던 1차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했다. 27명의 후보가 출마한 튀니지 1차 대선은 530만여 명의 유권자 중 64.6%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발표됐다. 1차 대선에서 1,2위를 차지한 बे지 카이드 에셉시(Béji Caïd Essebsi)와 문시프 마르주끼(Monset Marzouki)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함에 따라 결선투표까지 진행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던 세속주의 성향의 니다투니스 정당의 बे지 카이드 에셉시(87)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해 튀니지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자들은 기대했다.

문시프 마르주끼(69)는 독재정권에 항거해온 반체제 인사 출신 후보로 현재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가 정식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 민주화 혁명 이후 부상한 이슬람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2014년 12월 21일 2차 대선은 530만여 명의 유권자 중 61.11%인 약 31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बे지 카이드 에셉시와 문시프 마르주끼 두 후보의 결선투표로 진행됐고, 그 결과 बे지 카이드 에셉시는 제2공화국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튀니지가 직면한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가계 지표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스민혁명 이후 살라피(Salafi) 급진 이슬람주의당과 엔나흐다(Ennahda)당의 균열은 잠재적 테러공격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Nahda당과Ettakatol당은 최근 튀니지가 직면한 사회, 경제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대중의 지지가 내려간 반면 반대당인 Nida Tounes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분열된 정치세력(단일 정당의 집권이 어려워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심각한 수준의 치안(튀니지는 향후에도 국가 운영의 세속화와 서방과의 관계 증진에 반대하는 IS의 주요 타겟 국가로 남을 것임.)를 과 경제적 도전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정치적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 동향

○ 자스민 혁명 이후 개발 과제

자스민 혁명 이후 지속된 사회불안과 정치 소요는 튀니지의 주요 사회 및 개발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치 안정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스민 혁명 이후의 주요 개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학력실업문제이다. 고학력실업문제는 지난 수년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젊은이들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전체 실업률은 14%이나 젊은 층의 실업률은 20%인 바, 이는 젊은 층의 증가, 대학 졸업생 양산, 숙련근로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의 질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경제, 경영, 법학 석사 소지자 실업률은 평균 47.1%이고 사회과학분야 석사 소지자 실업률은 43.2%인데 비해 공학분야 석사 소지자 실업률은 24.5%이다.

근로자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고학력실업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시민혁명으로 인해 정세 불안과 이에 따른 생산력, 투자자 신뢰 감소, 지방의 치안불안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경제활동 감소 현상은 여러 산업분야 중 특별히 관광업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다.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는 Sidi Bouzid, Kasserine, Thala 등 중서부 지역에서 사회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인구와 경제활동은 주로 북동부(튀니스주)와 중동부(스팍스주)에 집중돼 있는 바, 연안지역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의 75%가 집중돼 있다. 더욱이, 공공투자의 65%가 연안지역에 집중되는 등 빈곤지역은 공공투자로부터도 외면을 받아 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도 낮은 상태이다.

셋째, 거버넌스 및 부패문제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튀니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결여돼 있다(프리덤 하우스). 특별히 중동지역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중 하나로, 튀니지 정부는 법적, 형사적, 경제적 제재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 왔다.

또한 오랜 독재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상층부의 부패가 만연하며, 이는 시민봉기와 정권 붕괴로 이어졌다. 벤 알리 대통령이 축출되고 정권이 교체됐으나 대통령 일가와 관련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미디어, 교통, 금융, 통신, 관광, 공항서비스,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 국가 비상사태 해제-재선포

2014년 3월 튀니지 정부는 지난 3년간 유지돼 왔던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2011년 비상사태 선포 당시 3인 이상 회합 금지, 통행금지 등 엄격한 규제들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완화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주요 지역에 배치된 군인들이 곧바로 병영으로 복귀했다.

2013년 두 명의 좌파 정치인이 암살된 후 정치적 불화가 지속됐고, 지난 12월 새로운 선거 전까지 과도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정세가 차츰 안정화됐다. 이번 조치는 국가 신뢰도 회복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자신감을 나타낸다. 실질적 정치 지도자인 Mehdi Jomaa 수상은 튀니지의 치안 상태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테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튀니지의

생산력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2014년 하반기에 있을 대선 전까지 경제활동과 투자를 촉진할 예정임을 공표했다.

또한, 2013년 1월 과도정부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문 금지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등 민주화가 소폭 진행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3월18일 튀니지 Bardo 국립 박물관 무장 테러 사건으로 20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3명의 튀니지인이 사망하고 6월 26일 Seifeddine Rezgui라는 튀니지 무장괴한이 튀니지 북동부 지역 주요 관광 및 휴양지인 Sousse에 있는 El-Kantaoui 소재 Imperial Marhaba 호텔 앞 해변에서 총기를 난사, 이 사고로 39명의 사상자들이 속출하며 7월 4일벤 알리 전 대통령이 외국으로 도피한 직후에 이어 4년만에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선언했다. 2017년 5월에도 국가비상사태를 1달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튀니지 정부의 리비아 난민 수용

리비아 내전은 40년이 넘게 리비아를 통치하고 있는 카다피에 대한 반정부군과 정부군의 싸움으로 2011년 1월 리비아 뱅가지에서 시작돼 2012년 9월 종식됐다. 하지만 불안이 여전히 계속돼 온 상황이다. 2012년 9월에 리비아 미 영사관 피습사건이 일어났고 2014년 1월 리비아 KOTRA 무역관장(한석우)이 피랍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2014년 7월부터 다시 리비아 사태가 악화돼 8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교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근접나라인 튀니지에서도 리비아 사태를 내전으로 인식하고 자국민을 포함한 리비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문제나 리비아 반군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게 될 치안 문제로 계속해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연료나 식자재의 가격이 약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4년 GDP의 약 8%를 차지하는 예산 부족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14 총 인구조사 실태

튀니지의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는데 2014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1956년 이래 6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됐다. 아직까지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튀니지의 전반적인 변화를 눈여겨볼 수 있다. 튀니지는 점차 선진국의 인구 양상을 닮아가고 있다. 2004년 991만 9,000명이었던 총인구수는 2014년 1,098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포함, 약 70만 해외 거주 튀니지인 미포함).

평균 인구증가율은 지난 십년 동안 1.03%로 1994-2004년 1.21%과 1984-1994년 2.35%에 비해 점차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건강관리, 고학력(특히 여성),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아랍국가 최초의 가족계획 아래의 산아제한 실시 성공 등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를 반영한다.

인구조사 최초로 총 인구수 중 남녀 비율에서 여성이 50.2%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서구처럼 변해가는 튀니지의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가구수가 2004년에 비해 2.12% 증가한 데 비해 평균 가족 규모는 2004년 4.5명에서 2014년 4명으로 줄어든 점에 비추어 튀니지 인구양상은 서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모습이다.

튀니지의 도시화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04년 인구의 64.9%가 도시에 살았던 반면 2014년 67.8%로 늘어났다. 이 또한, 도시에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EU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점차 이런 추세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최고령자 인구 수가 가장 많으며 이주율 또한 고려해야할 국가다. 해외에 거주하는 튀니지인은 88만 5천 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중 83%는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51만 1,000명은 프랑스에서 생활한다.

○ 튀니지 Bardo 국립박물관 테러

2015년 3월 18일 튀니지 Bardo 국립박물관에서 무장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20명의 관광객들과 3명의 튀니지인들이 사망한 테러가 발생했다. 박물관에 있었던 관광객들은 최대의 국제적 매스컴의 관심을 끌고 치안부대를 당황시키는데 표적이 됐다. Bardo 국립박물관은 튀니지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위치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튀니지 내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튀니지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불안정에 대한 국내외 영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 및 관광객을 막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테러는 2002년 Jerba에서 알카에다 추종자들이 21명(대부분 프랑스, 독일 관광객)을 살해한 사건 이후로 튀니지 최악의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5년 3월 25일 한국 정부는 튀니지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Tunis, Bizert, Hammamet, Sousse, Monastir, Sfax 등과 같은 튀니지 수도권 및 해안 관광도시를 2단계인 '여행자제' 지역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철수권고' 지역을 제외한 튀니지 전 지역이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됐다.

○ 튀니지 Sousse 해변 테러

2015년 6월 26일 Seifeddine Rezgui라는 튀니지 무장괴한이 튀니지 북동부 지역 주요 관광 및 휴양지인 Sousse에 있는 El-Kantaoui 소재 Imperial Marhaba 호텔 앞 해변에서 총기난사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39명의 사상자들이 속출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영국인과 독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8일에 일어난 튀니지 Bardo 국립박물관 테러와 더불어 이번 튀니지 Sousse 해변 테러를 계기로 튀니지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튀니지 외교부는 이 사고로 인한 희생자 관련국 대사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가 경비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반테러 안전망 규모 확장 의지 표명

2016년 5월, 튀니지 내무부 장관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해 13개 군부대와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Bizerte, Tunis, Monastir, Sfax, Sidi Bouzid, Kef 그리고 Djerba에 퍼져있는 지하드 해체, 수십 명의 피랍자 해방 그리고 무장 세력의 탄약 및 폭발물 압수를 목표로 한다. 5월 5일에 한 군인이 서쪽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지하드세력 무력화 임무 수행 중 지뢰폭탄에 부상을 입은 바 있다.

5월 11일에는 2명의 테러리스트가 2시간여에 걸친 총격전에서 총살을 당했으며, 37명이 무장단체 관련자로 체포됐고, 엄청난 양의 무기와 탄약이 압수됐다. 5월 19일에는 서쪽 산맥의 무장단체가 이슬람 국가와 관련이 있는 지하드단체의 한 튀니지인을 사살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내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33개의 지하드 세력 거점지를 소탕했고, 체포된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대표해 140명이 징병됐다고 밝혔다. 튀니지 장년층 1,877명은 전쟁 국가인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의 여행이 금지됐다. 이러한 사건들로 보아, 튀니지가 조만간 심각한 안전문제를 맞닥뜨릴 것이며, 강력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을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 최근 테러 동향

2016년 12월 22일 튀니지 내무부가 최근 발표한 대테러활동 통계에 따르면, 치안당국은 금년도 테러 조직 160개(전년도 90개) 와해, 테러용의자 5,000명(전년도 3,499명) 및 용병모집책 435명(전년도 208명) 검거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지난 11월부터 남부 Ben Guerdane 지역에서 테러무기 저장소 6군데를 적발하고 열탐지 기능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미사일 14점 등도 압수했다. 하지만 2017 년에도 튀니지는 여전히 테러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최근 발생한 테러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ISIS, Sidi Bouzid 산악지대에서 목동 참수

- 중서부 Sidi Bouzid지역 Mghilla 산지에서 2017. 6. 2(금) 2명의 목동이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돼 1명은 즉각 풀려난 반면 1명은 참수된 바, 이는 다른 아닌 2015년 동 지역에서 테러범들에 의해 참수된 Mabrouk Soltani(*)의 형인 Khalifa Soltani인 것으로 판명됨.

* Ajned Al Khilafa 테러조직은 2015.11.23(일) Mabrouk Soltani를 경찰의 첩자라고 지목하고 동인을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배포하면서, 테러조직원들의 이동 및 위치정보를 경찰에 밀고하는 모든 배신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위협한바 있음.

- ISIS 테러조직은 6.3(토) 저녁 기관지인 Amaq을 통해 Khalifa Soltani가 튀니지 정보당국의 첩자였는 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를 처단했다고 보도함. - 앞서 국방부 대변인은 6.3(토) Mghilla 산지에서 동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

(2) Mahdia에서 탁피리스트 1명 검거

- 경찰은 6.2(금) Mahdia지역 국가수비대원들을 라마단 기간 중 공격하려던 외로운 늑대 유형의 탁피 리스 1명(17세)을 검거한바, 최근 지역 국가수비대의 이동 시간대 등을 염탐해 적당한 순간에 흉기로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명됨.

(3) Kasserine 지역 Semmama 산지에서 군-테러조직간 총격전 발생

- 국방부 대변인은 5.31(수) 새벽 Kasserine 지역 Semmama 산악지대를 순찰 중이던 군병력과 무장 테러조직간 총격전이 발생한바, 테러범 들은 도주하고 AK 소총 1점 및 탄창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개요

무역/통상

체결협정	사증면제협정(1969), 문화협정(1969), 무역 및 경제협정(1970), 의료협정(1973), 투자보장협정(1975), 중과세방지협정(1988), 과학기술협력협정(1994), 항공협정(1994)
교역규모	1억 5,300만 달러(수출), 5,399만 달러(수입)(2016년 기준) 6,447만 달러(수출), 1,925만 달러(수입)(2017년 5월 기준)
교역품	자동차 철도차량, 기계·컴퓨터, 플라스틱, 광학기기, 유기화합물, 철강제품, 전기제품, 필라멘트섬유, 고무제품 등 (수출) 석유·석탄, 의류, 알루미늄, 어류, 전기제품, 편물의류, 광학기기, 가죽류, 가죽제품, 동(구리), 기계·컴퓨터 등 (수입)

자료원: 수출입무역통계, 무역통계분석, 수출입통계

정무·문화

1969년 3월 31일은 튀니지와 한국 간의 수교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기설치된 총 영사관을 승격해 1969년 3월 상주 대사관을 개설했으며, 2015년 4월 16일부터 김종석 대사가 활동 중이다. 튀니지의 경우 1990년 10월 서울에 상주 공관을 개설했으며, 현재는 Mohamed Ali Natti 대사가 2012년 11월 26일에 부임해 활동 중이다.

경제 협력

- 2012. 3. 14. ~ 2012. 3. 19.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튀니지 방문
- 2012. 5. 29. Abdelkarim Harouni 튀니지 교통부 장관 및 Jamel Gamra 해운청장 방한, 대우해양에서 수주·건조한 카페리 여객선 Tanit호 출항 기념식 참석

한국과의 주요 인사교류 현황

- 정부,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구축 지원

정부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1년 7월 11일 튀니지 총리실과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KOICA는 앞으로 3년간 570만 달러를 들여 튀니지 주요 공공기관에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KOICA는 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위해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고 튀니지 공무원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해, 튀니지 외교장관의 방한기간(2012년 4월 18~ 4월 19일)동안 튀니지 외교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KOICA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주: 송봉헌 튀니지 대사, 손송희 KOICA 주재원, 칼레드 조마니(Khaled Johmani) 국가조달감독청장, 모하메드 살라 벤 아이싸(Mohamed Salah Ben Aissa) 총리실 장관

나. 튀니지 외교장관 방한, 한국-튀니지 간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김성환 장관은 방한(2012.4.18.-4.20.)중인 라픽 압데살렘(Rafik Abdessalem) 튀니지 외교장관과 「한-튀니지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튀니지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통상 협력을 비롯한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픽 압데살렘(Rafik Abdessalem)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10년 12월 튀니지 민주화 운동 발발에 따른 ‘아랍의 봄’ 확산 이래, 튀니지 최초의 고위인사 방한인 동시에 라픽 압데살렘 장관의 최초 방한이다.



주: 김성환 장관과 방한(2012.4.18.-4.20.)중인 라픽 압데살렘(Rafik Abdessalem) 튀니지 외교장관과의 「한-튀니지 외교장관회담」

다. 튀니지 에너지광물부 장관 방한 간담회 개최

2016년 11월 초, 튀니지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튀니지 투자 및 프로젝트 환경을 소개하고 튀니지 진출정보,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등 튀니지 진출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라. 최신동향

무역·통상

한국과 튀니지간의 교역 규모는 2004년 이래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는 전년대비 대튀니지 교역이 40%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에는 수출금액이 4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수입금액도 소폭 늘었다. 총 교역량에서는 4억 8천 달러를 기록하며 양국 간 교역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에는 수출금액이 급감한 반면 수입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2014년 한국의 대 튀니지 수출은 1억 5,300만 달러, 수입은 1억 2,19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수출은 24.4% 늘어난 반면 수입은 50.1%나 감소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대 튀니지 수출이 1억 8,366만 달러, 1억 5,300만달러로 각각 11.6%, 16.7%로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튀니지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한 6,447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9% 감소한 1,925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문화

- 2010. 4. 8. 한국 산림청과 튀니지 농업부 간 산림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0. 12. 10. 한국-세계은행-월드뱅크 국제 컨퍼런스 행사
- 2012. 2. 8. ~ 2012. 2. 19. 평창드림프로그램에 튀니지 청소년 선수 4명 참가
- 2012. 6. Hedi Mechri 마그레브 이코노미스트지 사장 방한
- 2013. 10. 6. “The Asian Bridge” 개최
- 2013. 11. 2. 제3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 2013. 11. 24. ~ 2013. 11. 30. 한-아랍 청년프로그램 참가
- 2014. 11. 22. 제4회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 2014. 5. 22. Tunisna TV에서 주 1회 한국,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 방영
- Korea on the New Horizon(10회)
- Three Colors of Korea(8회)
- 2014. 6. 26. 제2차 한-튀니지 산림협력위원회
- 2014. 11. 14. KOICA(한국국제협력단) 국민신문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약정 체결
- 2015. 4. 22. 한-튀니지 미모사 페스티벌 개최
- 2015. 11. 8. 한-튀니지 마그레브 문화대축전
- 2016.6.13. 한-튀니지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코이카,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 지원

외교부 산하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0만 달러를 투입해 아프리카 튀니지의 국민신문고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지속되며 컴퓨터 시민 민원과 정책제안, 부패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튀니지 시민들은 본인이나 제출한 민원, 신고 등의 처리상태와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튀니지 정부와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 시스템 세부 내역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우선 튀니지 총리실 등 10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

- 2012. 3. 14. ~ 2012. 3. 19.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튀니지 방문
- 2012. 5. 29. Abdelkarim Harouni 튀니지 교통부 장관 및 Jamel Gamra 해운청장 방한, 대우해양에서 수주·건조한 카페리 여객선 Tanit호 출항 기념식 참석
- 2016. 8 한-튀니지 공간정보 분야 해외협력을 위한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

II. 경제

1. 경제지표 DB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3.0	2.9	1.0	1.2	1.5
	1인당 GDP	US\$	11,008	11,342	11,577	11,737	12,066
	명목 GDP	US\$ 백만	46,248	43,590	43,158	41,704	39,737
	실질 GDP 성장률	%	3.0	2.9	1.0	1.2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	5.8	4.9	4.9	3.7	5.2
	실업률	%	15.8	15.1	15.2	15.5	15.8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 백만	17,146	16,841	14,159	13,569	14,242
	수입실적	US\$ 백만	-22,981	-23,403	-19,103	-18,374	-19,155
	대외의존도	%	88.8	85.4	80.8	76.6	84.0
	무역수지	US\$ 백만	-5,836	-6,562	-4,945	-4,806	-4,913
	해외투자액	US\$ 백만	13	22	-	-	-
	외국인투자금액	US\$ 백만	1,603	1,096	-	-	-
	총 외채	US\$ 백만	25,661	26,372	27,363	28,924	30,791
	외환보유고	US\$ 백만	7,447	7,395	7,401	5,941	6,133
	환율	US\$	1.62	1.70	1.96	2.15	2.39

주*: EIU 추정치, 주**: EIU 전망치

주1: 실질 GDP는 2016년 달러 기준

주2: 실업률과 환율은 연평균 기준, 1인당 GDP는 PPP(구매평가)기준

주3: 수출·수입 실적은 상품 기준(서비스 미포함)

자료원: EIU(2017년 6월 보고서 기), IMF, WORLD BANK(면적, 실질 GDP), UNCTAD(해외투자액, 외국인투자금액)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2012~2016 차스민 계획

본 계획은 경제와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다. 다음 5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을 6.3%까지 올릴 것이며, 50만 일자리 창출과 2016년까지는 실업률을 10.5%로 낮출 것이다. 5개년 계획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2012년 말까지 공공 분야에 3만 명의 실업자를 채용하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며, 사업을 장려하고, 거시적 경제균형을 재정비하고 일년에 성장률을 5% 올리는 것이다. 2013~2014년에 개혁으로 6%까지 GDP성장을 올릴 것을 목표로 했고, 2015~2016년에는 일년에 7%로 올려 튀니지를 선진 경제 반열에 올릴 것이다. 이 계획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혁신적으로 경제를 개발시킬 것이다. 또한, 2016년까지 하이테크 산업이 GDP의 30%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가치는 두 배로, 외국인 투자는 2,200억 튀니지 디나르(1,570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인프라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20~25억 튀니지 디나르를 기술, 관광, 국내 무역, 이슬람 재정에 정부는 지출할 계획이다.

즉, 이 계획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제후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글로벌 경제로의 더 큰 통합과 부패에 맞서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부의 설립, 효율적인 행정처리능력, 금융, 교육, 민원 및 형사 서비스 분야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감의 증대를 목표로 잡는다.

튀니지는 수십 년 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공스토리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GDP는 2012년 기준 4.8% 성장으로 2011년 -0.2% 성장을 기록한 경제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여줬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PPP(실질구매력)기준, 약 1만 656달러로 충분한 구매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됐다. 튀니지는 벤알리 정권하에 1987년 이래 착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최근 수년간의 경제성장률은 5% 전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불황, 수출상대국인 유럽국가의 수요둔화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쳤음에도 4.6%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과 마찬가지로 3.0%를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0.2%로 낮아졌다.

튀니지는 2014년 2.3%라는 비교적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5년에는 1.1%로 크게 하락했다. 2014년 1월 신헌법 채택과 더불어 그해 말 성공적으로 대선과 총선이 치뤄졌다. 2015년 초, 연합 정부의 출범으로 투자자들은 2016년과 그 이후에도 거시경제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같은 해 관광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1.1%로 곤두박질쳤다(2015년 관광지 테러로 인해 튀니지 방문 관광객 수는 전년에 비해 20%나 급감했으나 2016년에는 2105년에 비해 6.8% 증가한 570만명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주요 관광지의 호텔이 완전 예약될 정도로 외국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도 여전히 튀니지 경제는 성장률 1%로 회복하지 못했으나 IMF에서는 튀니지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에는 2.5%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튀니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실질 GDP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약 0.1% 하락한 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7년 실질 GDP성장률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실업률은

15%를 상회하고 있으며 튀니지 정부는 수출, 외국인투자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경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튀니지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추정)	2017(전망)	2018(전망)
명목 GDP (US\$ 백만)	45,044	46,248	47,590	43,156	41,704	39,734	40,054
1인당 GDP(US\$)	10,601	11,008	11,342	11,577	11,737	12,068	12,541
실제 GDP 성장률 (%)	4.0	3.0	2.9	1.0	1.2	1.5	2.6
민간소비증가율(%)	5.3*	5.4*	3.2*	5.5*	5.0	3.7	3.3
투자증가율(%)	7.0*	0.3*	-4.5*	-1.3*	-4.8	-2.1	0.5
소비자물가 상승률 (%)	5.1	5.8	4.9	4.9	3.7	5.2	4.6
평균금리(%)	3.8	4.6	4.8	4.7	4.2	5.3	5.0
환율 (TD: US\$, 연평균)	1.56	1.62	1.70	1.96	2.15	2.39	2.53
실업률(%)	17.4	15.8	15.1	15.2	15.5	15.8	15.6

주: 1인당 GDP는 구매력지수를 반영함

주*: EIU 추정치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2017년 6월)

나. 새로운 은행법 실현

튀니지 의회인 인민대표의회의 승인으로 새로운 은행 재정법이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5월 12일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해당 법안 내용 중 200여 개의 조항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반대의견에 의해 재검토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가장 취약한 재정 시스템과 신용거래 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은행법은 외채를 늘리게 되고, 은행적자를 유발하며, 과도한 일자리 창출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시행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튀니지 재정 분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민간소비

민간 소비는 2007년 이래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돼 4.7%에 그쳤고, 2011년에는 3.4%으로 하락했다. 2012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 대선 이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돼 민간소비 상승률이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6월 EIU가 발표한 ‘Country Report’에 따르면, 튀니지의 민간 소비 상승률은 2013년 5.1%, 2014년 4.4%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의 경우 4.2%를 나타내고, 2016년은 3.7%로 추정되며 점진적으로 튀니지 민간 소비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민간 소비 부문은 GDP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튀니지 전체 소비량의 30%를 차지한다. 민간 부문이 튀니지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해당 부문의 성장세는 여전히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 산업 분야가 법규를 준수하는 회사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합법적 투자자들의 유입을 억제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수를 빼앗아 버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민간 부문의 붕괴의 뿌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부 장관은 민간부문에 관련해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캠페인의 성패여부는 세금제도의 커다란 개혁과 사회안전망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튀니지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라. 물가 상승률/환율

국제적인 식품 가격의 하락과 향후 4년 간 10%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 그리고 과거에 비해 안정된 통화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4년 이후로 정치적 안정이 예상되므로 물가상승률은 2013년 5.8%를 정점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4년 4.9%를 기록하면서 매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들 또한 물가안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튀니지 디나르는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약 11% 가까이 떨어지고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6%를 조금 넘게 떨어졌다. 그렇지만 새로운 헌법과 정부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이고 정부가 외화를 방해함으로써 튀니지 디나르에 개입하면서 2014년을 기대로 시작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 낮은 경제성장률, 무역 적자 등으로 인해 회복은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다. 국내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현실로 인해 튀니지 디나르는 2014년 3월 이후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거의 9% 가까이 하락했다.

리비아 사태의 영향과 더불어 정치적 불안감과 국가적 보안 문제는 여전히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의 급증으로 외화보유고는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튀니지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조언에 따라 튀니지 디나르 지원을 줄이고 있고 2014년 6월 말 중앙은행장(Chadli Ayari)은 정부의 튀니지 디나르 안정화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튀니지 디나르의 약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14년 4월에서 7월까지 5.2%에서 6%까지 상승했다. 2013년 튀니지의 물가상승률은 5.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4년 4.9%로 상승률이 하락했고, 2015년에는 4.9%로 수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2016년 3.7%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소비자물가는 5%대로 전망된다.

반면, 튀니지 디나르의 달러대비 환율은 2013년 연평균 1.62를 나타냈고, 2014년은 1.70을 기록했다. 튀니지 디나르는 새로운 헌법과 정부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이며 2014년을 시작했으나 대선을 앞둔 긴장감, 낮은 경제성장률, 무역 적자 등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 환율은 경제의 근간이 탄탄해진

2016년경부터 안정화될 것이다. 최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붕괴로 높은 수치에 있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측기간에 세계 석유와 식량가격 회복과 결부된 보조금 감소를 위한 노력은 인플레이션의 폭락을 방지할 것이다. 튀니지 평균 인플레이션은 2015년 4.9%를 시작으로 2017년은 3.7%까지 하락될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 전 공공 지출 및 비석유 상품 수입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점차 인플레이션의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상황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통해 2015년 유로의 가치가 미국 달러와 반대로 하락하면서, 튀니지 또한 이 경제적 흐름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튀니지 통화는 2014년 대선 준비 기간 동안의 유로 손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대비를 해왔으므로 유로만큼 빨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2016~2018년 튀니지 디나르 가치는 연 4%의 평균율로 하락할 것이며 2017~2018년 동안 유로가 달러와 반대로 강화된다는 예측을 고려했을 때 튀니지 디나르 또한 그럴 것이다.

튀니지 디나르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유로 대비 환율이 3.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가 이루어지는 2019년도에는 7% 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2020년에는 완만한 하락세를 거쳐 3%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러 대비 튀니지 디나르 환율은 2016~17년도에 더욱 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에 2.53튀니지 디나르로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마. 실업

30세 이하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는 인구 구성상의 특성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벤알리 정권은 외국기업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왔으나 2010년 실업률은 13%에 달했으며 대졸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민주화 시위의 원인으로 작용한 상기 수준의 높은 실업률은 2011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아 17~18%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돼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튀니지는 2011년 18.3%, 2012년 17.4%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2012년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물론 이것은 튀니지 정부에 큰 희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대졸 실업자 실업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와 사회, 정치 전반의 불안을 야기했다.

2013년 튀니지 실업률 15.8%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5.1%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튀니지 정부는 일자리 창출, 국가 생산력 향상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튀니지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2015년 15.2%를 나타내고, 2016년은 15.5%로 추정되며, 실업률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테러 위협은 끈질기게 존재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국내 경제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특히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튀니지 정부의 노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의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9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을 약 15%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바. 인플레이션

2012~2014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붕괴로 높은 수치에 있던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튀니지 디나르 안정화, 국내 식품 생산의 강화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보조금 감소 노력으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 감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튀니지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15년 4.9%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경제 정상화 활동을 기반으로 2017년에는 평균 인플레이션이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세계물가와 보조금 삭감 정책이 인플레이션 증가를 억제 한다고 한다. 선거 전 공공지출 및 비석유 제품의 수입가격 상승과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8년 인플레이션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 경제전망

2016년 말 튀니지 중앙은행은 2016년도 경제성장률을 1.2%(농업분야 제외)로 추산하면서, 2017년은 1.5%(IMF에서는 2.5%로 예상), 2018년은 2.6%로 미약하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성장이 불규칙하며 사회문제 등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성장동력(2010년 기준)은 당분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2년간 현저한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3. 주요 산업동향

가. 최신 산업동향 - 광물/에너지

튀니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발달돼 있다. 1980년대 초에는 연간 500만 톤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채산성 부족으로 석유 생산이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유가 인상 등으로 채산성이 확보되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석유생산은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인 반면 가스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석유 생산량은 400만 톤으로 튀니지 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에너지관련 무역적자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1992년 이후 튀니지는 에너지 수입국이 돼 리비아에서 원유를,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으로부터 정제유를 수입해 왔다.

튀니지의 에너지 수요규모는 750만 TOE(Ton of Oil Equivalent)으로 튀니지 생산 400만 톤의 석유 및 400만 TOE의 가스로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0만 TOE 가스는 튀니지에서 생산되는 240만 TOE 외에 알제리-이탈리아간 가스수송관(Gazduc algero-italien Transmed)의 튀니지 통과로 인해 얻는 수입인 130만 TOE 분량의 가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튀니지의 석유 지도



튀니지 남부 및 지중해 연안에 분포된 Adam, Hawa, Dalia, Jenein, Warda, Nawara, Nakil, Oudna, Didon 등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구를 비롯, 채굴 중이나 아직 채산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구 등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일일 7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남부 지역의 작은 광구들(Dalia, Nour, Hawa, Adam)이 새로운 주요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1978년 발견됐으나 채산성 부족으로 개발되지 못한 Oudna는 최근 일일 2만 배럴 이상, Didon-6는 일일 1만 배럴 이상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채굴 중인 Adam, Nakil의 광구들은 최근 시험 생산에서 높은 생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Tazerka 등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됐던 광구들의 재생산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US Geological survey 에 따르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튀니지의 석유/가스 매장량은 6억 TOE(석유 3억5,000만 톤, 가스 2억 5,000만 TOE)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년 8개 정도의 광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1개의 광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튀니지의 석유 1일 생산량은 9만 5,000배럴(2008년 기준)이며 생산광구는 El Borma, Ashtart, Ouedna, Adam, Didon, Miskar 등이 있다. 가스의 1일 생산량은 6MNm³(2007년)로 대표적인 생산광구는 Miskar이다.

하지만 튀니지는 인접국가에 비한다면 석유 및 가스 등 탄화수소자원 매장량이 적은 편이다. 2012년 'Jeune Afrique'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11년 탄화수소자원 생산량은 PIB의 7%로 640만 톤이다. 이

는 인접국가인 알제리의 2억 600만 톤에 비하면 약 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2000년부터 30여 업체의 정기적인 자원개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시추 작업 등 자원개발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며, 광물자원부 장관 Mohamed Lamine Chakhari 에 따르면 그 투자액을 1억 2400만 유로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 천연가스만을 추출하며 그 중 60%는 2009년 말부터 영국기업에 의해 개발됐지만, 이번 Gaz du Sud로 명명된 프로젝트는 튀니지(Etap), 오스트리아(OMV), 이탈리아(ENI)가 합작해 개발 됐다. 각각 50%, 33.33%, 16.66% 지분 구조를 보이고 있다.

나. 주요 산업

GDP의 28.3%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튀니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주요 외국인 투자처로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생산량의 90% 수출)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수출이 증가 하고 있다.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은 제조업 다음으로 큰 튀니지의 주요 외화소득원이지만, 2012년 같은 기간 대비 2013년 1~4월 사이 3% 감소했다. GDP의 10.5%를 차지하는 농업분야는 매년 17억 달러 규모(전체 수출의 9.1% 차지)이며 2016년의 경우 강수량이 적어 33% 감소한 바 있다. 관광 산업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다.

1) IT - 정보통신산업

한-튀니지 국가협력

튀니지 국민의 무료 인터넷 사용 및 전문기술 배양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 2006년 한국측이 튀니스의 사이언스시티 내에 인터넷플라자를 창설했다. 그 후, 한-튀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은 더욱 강화 됐고, 2009년 에는 한국과학기술정책 연구소와 튀니지 카운터파트 기관인ONST가 “튀니지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적 우선과제 선정”을 테마로 워크숍을 가졌으며, 사기업 분야에서는 LG 전자가 튀니지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무선통신기술 연구개발센터를 튀니스에 신설하는 등, 양국간 과학 기술연구 분야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ICT 발전 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

구분	2012년		2013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대한민국	1	8.81	2	8.85
UAE	46	6.27	32	7.03
튀니지	96	4.07	99	4.23
알제리	114	3.42	114	3.30

자료원: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주: 순위(166개국 중 순위)

세부지표별 ICT 발전지수 추이

세부지표		2012년	2013년
		조사수치	조사수치
ICT 이용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41.4	43.8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4.9	4.8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5.9	28.1
ICT 접근성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수	10.1	9.3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118.1	115.6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 대역폭	18'745	19'134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23.2	25.4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	17.1	18.2
ICT 활용능력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91.1	91.1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35.2	35.2
	성인 문자 해독률	79.7	79.7

자료원: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4

튀니지 ICT 관련 통계

구분	2010	2011	2012	2013
유선전화 가입건수	1,289,585	1,217,781	1,098,893	1,021,979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건수	12.13	11.32	10.10	9.29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481,810	558,943	527,915	524,631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건수	4.53	5.20	4.85	4.77
개인 인터넷 이용자 비율(%)	36.80	39.10	41.44	43.80
이동전화 가입건수	11,114,206	12,387,656	12,843,889	12,712,365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건수	104.54	115.20	118.11	115.60

자료원: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인프라 시설 -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는 규제와 투자의 합법화

상대적으로 발전된 튀니지의 전기통신 인프라는 통신사들 간의 경쟁 환경 속에서 형성됐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정부 규제는 합법화 됐고 전기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격려했다. 즉, 정치적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침투력 그리고 브로드밴드 사용 증가 면에서 아프리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튀니지 정부는 2015년까지 4G 라이선스를 모바일 통신사(튀니지 텔레콤, 튀니지아나 그리고 오랑지 튀니지)에게 승인하고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려고 계획 중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랍의 봄 사태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지연되기는 했지만 터키의 주요 모바일 공급자 중 하나인 Turkcell, 한국 KT 그리고 오랑지(Orange) 그룹은 튀니지 텔레콤의 지분 중 35%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13년 튀니지아나(Tunisian)와 오랑지 튀니지는 튀니지의 Kelibia에서 유럽 Interoute사의 광섬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Didon 해저케이블 위임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효과적 규제체계의 부재, 인터넷 보안 부족 그리고 정부의 온라인 검열 규제로 튀니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몇몇 민영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들이 비용을 잘 활용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Meninx Technologies사의 경우 2013년 Enfidha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IT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국제학교가 튀니지에 2013년 12월 구성돼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에서의 조사 착수를 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모바일 시장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모바일 침투율을 가지고 있고 무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고객의 97%가 선불 접수를 택했다. 2009년 Orange사에 유선 및 무선 라이선스가 승인이 나자 전기통신 분야에서 튀니지 텔레콤과 튀니지아나에 이어 세번째 통신사가 되면서 통신사들의 경쟁이 가열됐다. 2010년 Orange사는 3G 모바일 인터넷을 시작해 다른 통신사들도 뒤이어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까지 4G 네트워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돼 모바일 서비스는 앞으로 통신사들의 수입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G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장과 4G 네트워크의 첫 선이 예상됨에 따라 모바일 가입건수나 통신사 수입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브로드밴드 활용을 촉진시키는 경쟁환경 그리고 낮은 가격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브로드밴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국내 브로드밴드 활용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다. 튀니지 텔레콤의 DSL 네트워크 투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s)와의 경쟁은 가격을 낮추었고 브로드밴드 범위를 확장시켰다. 튀니지 국민들에게 초고속 브로드밴드 연결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광섬유 네트워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위성 텔레비전 침투는 여전히 높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다양한 뉴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하다.

ICT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IPB(ICT Price Basket)에 의하면 튀니지는 2013년 통신망 가입 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면에서 161개국 중 64위를 차지했는데 2008년 53위였던 점에 비해 하락한 수치가

다. 튀니지는 2013년 높은 가정 위성 텔레비전 침투율을 보인다. 위성 텔레비전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 2008년 72.4%에 비해 2013년 82.7% 그리고 2030년까지 90.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 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약함

인터넷 침투율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강한 곳 중 하나이다. 셀슈밍이나 클라우드소싱 같은 주류 온라인 분야는 아직 튀니지에서 영향력은 없다. 온라인 결제 보안 문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거래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아마존(Amazon)과 이베이(eBay) 같은 글로벌 온라인 시장은 튀니지에 직접 진출해 있지 않고 온라인 구매자들은 해외 수송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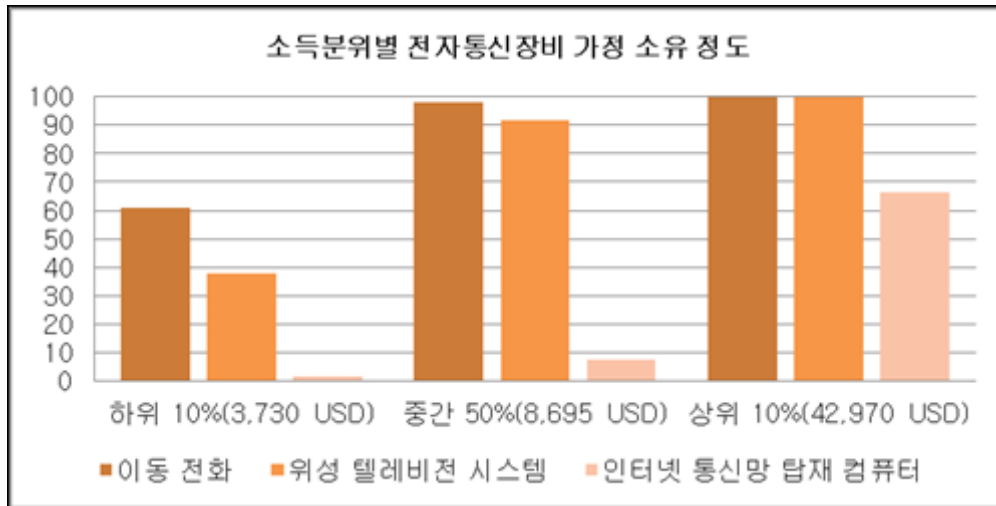
웹사이트 주소	비고	순위(총 500)
Babnet.net	일반기사 웹사이트	1
Webmanagercenter.com	튀니지 경제분야 웹사이트	2
Tap.info.tn	튀니지 뉴스 및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최초 통신사 웹사이트	3
Kawarji.com	튀니지 축구관련 웹사이트	4
Lapresse.tn	튀니지 최초 일간지 웹사이트	5
Poste.tn	튀니지우체국 웹사이트	6
Nouvelair.com	튀니지에어 웹사이트	7
Technologuepro.com	공학관련 고등교육을 위한 웹사이트	8
Annoncesexpress.com	다양한 광고 웹사이트	9
Bct.gov.tn	튀니지 경제 및 외화관련 웹사이트	10

자료원: Alexa, by category

내구소모재 침투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격차 - 신기술이 텔레콤의 확장을 촉진시킴

실제 2013년 가정이 통신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의 평균은 5.0% 증가, 5년 연속 성장을 맞고 있다. 2013년 가정이 지출하는 통신 서비스는 809튀니지 디나르(498달러)로 중동과 아프리카 평균의 거의 2 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2014-2030년에는 실질적으로 103%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3년 가정이 전자통신장비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5.0% 감소,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한 수치이다. 2013년 전자통신장비에 들은 비용은 21.2튀니지 디나르(13.1달러)로 중동과 아프리카 평균에 못 미치는 숫자이다. 2014-2030년에는 실질적으로 1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층에 걸친 내구소모재 소유에 관한 차이는 튀니지의 정보 격차를 반영한다.



인터넷 소매업 빠른 성장 예상 - 비즈니스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사용

많은 튀니지의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의 상업 거래와 수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이용을 한다. 2008년 77.5%에 비해 2013년 비즈니스의 93.4%가 컴퓨터를 사용했다. 2013년, 비즈니스의 54.1%가 유선 브로드밴드를 사용했고, 2008년에는 28.9%이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비중도 2008년 48.5%에서 2013년 64.8%로 증가했다.

2013년, 비즈니스의 25.0%가 온라인 주문을 했다. 2008년에는 9.7%였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 기업의 비중도 2008년 7.4%에서 2013년 22.8%로 증가했다. 2013년, 인터넷 소매업의 총 가치액도 2,410만 튀니지 디나르(1,500만 달러)로 실질적으로 2009년 이후 113%나 증가했다. 실질 기간 동안의 538%의 증가로 옷과 신발 산업이 2009-2013년 가장 빠른 성장을 했다.

인터넷 소매업은 2014-2018년 기간 동안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 중 하나로 이집트(53.7%), 케냐(32.5%) 그리고 나이지리아(74.0%) 보다 높지만 오만(179%)와 사우디아라비아(183%)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브로드밴드

튀니지 텔레콤은 2007년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유로의 브로드밴드 접근 솔루션 작업(VoIP 및 IPTV 포함)을 전개했다. 이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과 기업고객들을 위한 가상사설망(VPN)을 지원했다.

2009년 3월 튀니지 텔레콤은 범유럽 통신사인 Interoute사와 북아프리카에서 Interoute 광섬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립하기로 계약했다. 2009년 이탈리아와 연결된 이 케이블은 튀니지에게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SEAMEWE 4와 같은 컨소시엄 소유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의존을 없앴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70km의 광섬유 케이블이 튀니지 Kelibia에서 시칠리아섬의 Mazara del Vallo까지 이어진다. 시칠리아에서 케이블은 범유럽 광섬유 네트워크로 이어져 24개국으로 연결돼 총 3.2테라비트(Tbps)의 용량을 가진다.

2013년 5월 우리두와 튀니지 Orange사는 Interoute사와 새로운 170km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협정을 맺었다. Didon이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케이블은 튀니지 소유의 첫번째 해저케이블이 될 것이며 2014년 4월 가동 시작인 이 케이블은 통신사당 8 테라비트의 용량을 전송한다. 이 케이블은 인터루트사의 유럽 광섬유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이탈리아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Alcatel-Lucent 의 100g 해저 기술을 이용하고 튀니지 오랑지사와 우리두의 현재 존재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다. 통신사들의 유선전화방법과 모바일 라이선스에 관한 것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의 2013년 1월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통신사들이 인터넷 에이전시 ATI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는 국제 통신을 이용하고 국내 인프라를 사용하도록 하게 한다. 2010년 6월, 튀니지 텔레콤은ADSL 서비스 제공자인 TopNet의 경영활동권을 얻었다. TopNet은 튀니지 텔레콤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전화

최근 이동전화 업체별 가입자 분포 현황

이동전화 업체	가입자 수(천 명)	시장 점유율(%)
Ooredoo	6,521	45.7
Tunisia Telecom	5,053	35.3
Orange Tunisia	2,710	19.0
합계	14,284	100.0

주: 2014년 4분기 기준

자료원: BMI, North Africa Telecommunications Report

2) 자동차/수송기기 - 자동차

2014년 튀니지 상위 10개 자동차 브랜드

제조사	판매량	점유율(%)
Citroen	5,670	10.6
Volkswagen	5,039	9.4
Peugeot	4,981	9.3
Renault	4,638	8.7
Kia	3,978	7.5
Fiat	3,557	6.7
Isuzu	3,268	6.1
Hyundai	3,082	5.8
Toyota	2,573	4.8
Ford	2,527	4.7

자료원: BMI Tunisia Autos Report Q2 2015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WTO·RTA·FTA·기타협정 가입 및 체결현황

튀니지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이름	체결국가	협정 종류	체결일	발효일	상태
Agadir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지역자유무역협정	2004.2.25.	-	-
아랍마그레브연합 (Arab Maghreb Union)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지역자유무역협정	1989.2.17.	-	-
EC - Tunisia	EC국가, 튀니지	쌍무간 자유무역협정	1995.7.7.	1998.3.1.	발효
EFTA - Tunisia	EFTA국가, 튀니지	역내자유무역협정 (AFTA)	2004.12.17.	2005.6.1.	발효
Jordan - Tunisia	요르단, 튀니지	쌍무간 자유무역협정	1998.4.22.	-	-
Tunisia - Turkey	튀니지, 터키	역내자유무역협정 (AFTA)	2004.11.25.	2005.7.1.	발효

자료원: 세계은행 무역협정 데이터베이스 (<http://wits.worldbank.org/gptad/library.aspx>)

EU와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중해 연안의 아랍국가(모로코, 이집트, 요르단)와도 FTA를 체결했다. 1996년 3월 EU와 제후협정(Association Agreement) 및 FTA 체결을 하고, 2008년 전면 발효됐다. 또한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4개 아랍국가 간 Agadir 협정이라 불리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국 중 모로코가 2006년 7월 11일 마지막으로 비준함으로써 2007년 3월 27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나.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ARAB LEAGUE(아랍연맹), AFRICA UNION(아프리카연합), IDB(이슬람개발은행), IMF, UN, WTO 등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튀니지 교역규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도에 42억 4,000만 달러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대폭 하락했다. 2011년도에는 수출과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7.67% 및 12.2%가 증가해 17억 8,000만 달러 및 22억 6,000만 달러로 2008년 교역량 수준을 거의 대폭 회복했다. 2011년 이후로 무역 규모는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 이래 수출과 수입이 연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의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수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무역수지는 2000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튀니지 수입은 낮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하락한 국제유가로 인해 쉽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 실적의 경우, 예측기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이는 증가하는 국내수요와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수입어음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연결돼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튀니지 경상수지 적자는 2015년 8.4%의 GDP에서 2019년 6.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적자규모는 여전히 상당하며 투자유입에 대한 개선이 지체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차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도 1~11월간 튀니지 무역수지적자는 116억 2,800만 튀니지 디나르로, 적자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에너지(전체 적자의 22.9%인 -26억 6,200만 튀니지 디나르), 식품(-9억 4,700만 튀니지 디나르) 등으로 드러났다. 수입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1차원료 및 인산(+5.7%), 반제품(+10.1%), 장비류(+8.3%), 소비재(+12%) 등의 부문에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수출의 경우에는 인산염 및 인산가공품(+42.3%), 전자기계류(+15.6%) 및 섬유류(+7.9%) 부문에서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을 기준으로, 중국(-34억 7,400만 튀니지 디나르), 터키(-13억 3,000만 튀니지 디나르), 러시아(-12억 1,000만 튀니지 디나르) 등과는 무역적자가 악화된 반면, 프랑스(+26억 6,100만 튀니지 디나르), 리비아(+8억 1,900만 튀니지 디나르)와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프랑스(+14.7%) 및 독일(+7%), 스페인(-30.4%), 이태리(-4.3%) 등을 포함한 EU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5%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EU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0.9% 감소한 201억 3,600만 튀니지 디나르를 기록했다. 또한 마르레브권에서는 대알제리 수출이 33.2% 증가한 반면, 리비아로는 9.7% 감소했다.

튀니지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추정)	2017(전망)
수출	17,876	17,071	17,146	16,841	14,159	13,569	14,242
수입	-22,623	-23,102	-22,981	-23,403	-19,103	-18,374	-19,155
교역량	40,499	40,173	40,127	40,244	33,262	31,943	33,397
무역수지	-3,386	-6,031	-5,836	-6,562	-4,945	-4,806	-4,913

자료원: EIU (2017년 6월 보고서)

나. 주재국 국가별 수출입

튀니지 수출의 약 75%가 EU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튀니지 통계청 기준으로 2015년도 튀니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스페인, 알제리 등으로 한국은 1%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으로 한국은 0.1%미만의 비중을 보였다. 한편, 2015년도 튀니지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여전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터키와 스페인의 비중이 돋보였다. 한국은 1.2%가량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대상국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의 비중이 높았으며, 한국은 0.4%에 그쳤다(자료원: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INS), 무역통계시스템).

튀니지 국가별 수출입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국가명	2013		2014		2015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프랑스	4,911	4,813	4,455	5,218	3,985	4,220
2	이탈리아	4,284	3,050	4,370	2,920	3,352	2,551
3	독일	1,743	1,797	1,742	1,935	1,512	1,623
4	중국	1,261	176	1,236	213	1,238	184
5	터키	892	290	914	196	819	143
6	스페인	1,224	685	1,215	505	811	623
7	알제리	1,646	488	1,584	490	-	-
8	미국	907	748	831	524	602	546
9	벨기에	490	407	439	397	355	312
10	우크라이나	298	14	329	11	333	8

11	브라질	290	136	237	72	302	57
12	네덜란드	345	427	336	375	289	197
13	러시아	224	137	400	130	273	93
14	인도(인디아)	285	117	268	185	213	115
15	영국	246	629	257	493	210	221
16	스위스	226	160	276	167	200	147
17	한국	167	244	207	121	183	50
18	그리스	103	14	360	27	176	22
19	루마니아	123	86	252	60	161	71
20	홍콩	117	33	126	56	156	39
	총합	19,872	14,451	19,834	14,095	15,170	11,222

자료원: 무역통계시스템 2017년 6월 최신자료(수출액 순)

다. 주재국 품목별 수출입

2015년도 기준 튀니지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장비(38.0%)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오라스콤 텔레콤,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외국 투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섬유(18.4%), 농업(17.8%)원유 및 석유 화학 제품(9.5%), 기타 제조품(9.7%)등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 장비(41.2%), 석유 화학 제품(16.2%), 기타 제조품(18.2%), 섬유(9.2%) 등이다.

한편 2016년 튀니지의 수출은 2015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인산염(29.1%), 기계 및 전기부품(15.7%), 섬유 및 의류(8.3%) 등이며 수출이 크게 감소한 품목은 올리브오일(-54%)이다. 같은 해 튀니지의 수입은 2015년에 비해 5.3% 증가했는데, 천연가스(42%)와 개스터빈(90%), 섬유 및 의류(11.4%)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2016년 튀니지 무역수지는 2015년에 비해 2억 1,400만 달러가 늘어난 48억 달러를 기록했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주재국 교역현황

한국과 튀니지 간의 교역 규모는 2004년 이래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양국 간 교역 사상 최고치인 3억 7,967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전년 대비 대튀니지 교역이 40%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튀니지에 대한 수출의 경우 2011년도에 전년 대비 46% 감소한 1억 8,60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는 수출이 171.9%로 비약적인 증가를 이루어 양국 간 전체 교역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의 판매가 급감해 2010년의 증가세를 유지해나가지 못했다. 또한 2012년에는 다시 수출이 4억 2,335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2013년 1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또 다시 급감했다. 2014년 수출액은 2억 787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24.4%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전년동기대비 대튀니지 수출은 16.78%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튀니지로부터 수입액은 반 이상 추락해 2015년도에는 5,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6년 전년대비 6.8% 증가한 5,39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나.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한-튀니지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126,825	344,789	185,610	423,351	167,114	207,870	183,660	152,999
수입	18,904	34,885	42,658	68,881	244,391	121,900	50,552	53,992
교역량	145,729	379,674	228,178	492,232	411,505	329,770	234,212	206,991
무역수지	107,921	309,904	142,952	354,469	-77,277	85,970	133,108	99,007

주: 2017년 6월 기준
 자료원: 무역통계시스템

다. 한국과의 무역통계 특징

수출 및 수입/품목별 상위 10개 품목

한국의 품목별 대튀니지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07,870	24.4	183,660	-11.6	152,999	-16.7
1	725190	기타건설중장비	19,505	45.0	15,656	-19.7	21,490	37.3
2	741150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42,841	18.6	65,348	52.5	35,633	-45.5
3	741200	화물자동차	11,190	1.0	14,633	30.8	9,305	-36.4
4	836110	액정디바이스	316	-72.7	3,875	1,127.6	7,471	92.8

5	310900	기타플라스틱제품	1,478	-10.8	3,837	159.5	4,617	80.9
6	741170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6,110	-56.0	9,489	55.3	7,194	-24.2
7	219000	기타석유화학제품	12,032	-22.6	10,569	-12.2	8,727	-17.4
8	741170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7,579	-30.0	12,379	63.3	7,194	-24.2
9	320900	기타고무제품	292	-58.5	1,671	471.3	2,931	75.4
10	713110	공기조절기	1,463	625.3	1,567	7.1	2,742	75.0
11	614120	철및비합금강용 점강관(중소)	2,382	42.8	2,204	-7.5	2,543	15.4
12	831120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806	176.5	1,206	49.7	2,193	81.8
13	214008	폴리메탄아크릴 산메틸	1,631	-2.8	925	-43.3	2,540	-1.2
14	721100	섬유기계	515	62.5	0	-86.5	0	-134.6
15	742000	자동차부품	2,812	49.1	2,479	-11.8	2,450	-1.2
16	814720	초음파영상진단 기	1,437	29.8	1,477	2.8	1,595	8.0
17	831390	기타개별소비자 반도체	221	5.2	91	-58.8	1,984	2,078.0
18	226200	의약품	1,292	-45.1	1,424	10.2	1,737	21.9
19	214006	ABS수지	3,723	14.1	2,110	-43.3	1,927	-8.7
20	744200	철도차량부품	10	-81.6	17	71.9	886	5,058.7
21	228900	기타정밀화학원 료	1,379	-20.6	1,014	-26.5	1,070	5.5
22	725130	건설중장비부품	1,243	47.0	850	-31.7	959	12.9
23	728200	수확탈곡기계	90	-53.8	0	-100.0	335	0.0
24	439900	기타의식물	316	-62.1	579	82.9	876	51.3

25	849920	기타중전기기부품	978	299.1	1,338	36.8	0	0
26	746340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694	37.2	174	-74.9	339	94.7
27	214001	저밀도에틸렌	221	-43.2	1,215	448.9	766	-51.1
28	741900	기타자동차	858	-50.1	2,331	171.5	557	-76.1
29	733100	의료용기기	524	-18.8	626	19.5	548	-12.4
30	422200	폴리에스터사	961	239.2	600	-37.6	540	-9.9

주: MTI 6단위 분류, 2014년도 품목별 수출동향은 순위와 무관
 자료: 무역통계시스템 누계 수출금액 순(국내통계-국가수출입-품목별 검색)

한국의 품목별 대 튀니지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21,900	-50.1	50,552	-58.5	53,992	6.8
1	133400	나프타	67,660	-65.0	9,176	-86.4	16,879	84.0
2	621130	동스크랩	882	-43.0	2,591	193.6	5,316	105.2
3	441207	남성바지	5,184	-5.1	4,057	-21.7	4,124	1.7
4	441208	여성바지스커트	3,177	-4.8	2,947	-7.2	2,649	-10.1
5	833200	변성기	1,808	-5.0	2,302	27.3	2,022	-12.2
6	441213	남성셔츠	1,577	-7.4	1,470	-6.7	1,513	2.9
7	441108	스웨터	1,666	31.7	1,998	19.9	2,076	3.9
8	711130	불꽃점화식내연기관	-97.7	1	1	3,370.8	178	85.5
9	441109	언더셔츠	1,119	727	1,041	-6.9	994	-4.5
10	041800	뱀장어	789	26.2	848	7.4	718	-15.2
11	045100	어육	6,973	25.4	3,783	-45.7	1,631	-56.9
12	836110	액정디바이스	252	-59.4	403	59.6	800	98.5
13	441210	브라우저	1,008	8.6	1,274	26.3	1,259	-1.1

14	441201	코트 및 자켓	1,863	54.0	1,543	-17.2	1,059	-31.4
15	441209	드레스	-2.8	3,235	942	18.7	857	-9.0
16	742000	자동차부품	584	-21.1	847	45.1	818	-2.4
17	331200	양가죽	1,246	-30.0	639	-48.7	843	31.8
18	041100	참치	1,321	96.3	602	-54.5	832	38.3
19	513200	가죽제 가방	696	-19.9	608	-12.7	640	5.3
20	621120	알루미늄 스크랩	9,783	166.0	3,829	-60.9	886	-76.9
21	441206	여성양복상의	287	-30.0	167	-41.7	282	68.4
22	850090	기타전선	216	120.1	141	-35.0	0	0
23	579000	기타공예품	1	-98.0	53	6,906.0	204	288.1
24	441212	기타운동복	171	62.5	224	31.1	173	-23.1
25	441106	남성아우터셔츠	382	98.9	340	-11.1	178	-47.5
26	441107	브라우스	97	5.9	146	50.0	171	17.3
27	841250	중대형교류전 동기	550	-14.2	367	-33.2	0	0
28	834200	연결부품	429	22.9	382	-10.9	240	-37.3
29	449010	직물제 가방	192	-6.3	129	-32.9	151	17.1
30	441112	화운데이션	129	-43.0	186	44.4	168	-9.3

주: MTI 6단위 분류 2014년도 품목별 수출동향은 순위와 무관
 자료원: 무역통계시스템 누계 수입금액 순 (국내통계-국가수출입-품목별 검색)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2016년 11월 기준, 한국의 대 튀니지 수출품목은 MTI 1단위 분류 기준으로 기계류(60.2%)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전자전기제품(13.4%), 화학공업제품(13.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6.8%) 등이다.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2016년도 11월 기준, 한국의 대 튀니지 수입품목은 MTI 1단위 분류 기준으로 광산물(32.9%), 석유류(30.3%), 철강금속제품(11.6%), 전자전기제품(7.9%) 등이다.

2016년 한국의 주요 수출입 특징

한-튀니지 교역관련 특징으로, 한국은 건설 중장비, 화물자동차, 철도차량, 자동차 부품이 전체 대튀니지 수출 비중의 약 50%를 차지한다. 2015년 수출 1위품목은 건설 중장비가 차지했으며, 철도차량부품 품목의 수출 증가추세가 돋보인다. 수입관련 특징으로는 나프타가 수입의 절반 이상(약56%)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물의 수입이 꽤 차지하고 있다.

교역규모	(수출) 1억 5,299만 달러/ (수입) 5,399만 달러
교역품	(수출) 건설중장비,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화물자동차 등 (수입) 나프타, 동스크랩, 남성바지 등

주: 2017년 6월 최신자료 (2016년 기준치)

자료원 : 무역통계시스템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제도 개요

수입금지품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재 약 97%의 품목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3%의 품목은 사전승인 대상품목은 승용차 및 의약품이 대표적이다.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쿼터 적용품목은 대부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이다. 폭발물, 무기, 군수 및 보안용 제품은 수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자만 수입할 수 있다. 마약류와 포르노그래픽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 외에도 국내 유치산업과 경쟁하는 품목, 미국의 호르몬 사육 육류 및 위험물질, 국방, 안보관련 품목 수입도 제한한다.

나. 수입금지 품목

- 튀니지 화폐
- 인정받은 사냥용 무기를 제외한 무기
- 폭발물
- 마약 및 기타 향정신성 약품
- 위조상품
- 중고의류
- 야자나무, 야자나무 줄기 및 야자나무의 부산물
- 헨나(henna)
- 투건 - 핏불, 로트와일러, 토사, 마스티프 등
- 튀니지 풍속, 건강, 치안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제품

다. 수입규제 품목

담배 및 주류의 수입은 아래와 같이 양에 관한 제한을 받는다.

대분류	소분류	제한
주류	25° 이하의 도수	2L
	25° 이상의 도수	1L
담배	담배	200g
	가는 담배	100g
	시가	50g
	Tombac	500g

몇몇의 제품은 아래와 같이 특수 허가가 필요하다.

제품	허가 발급처
위성장치 및 핸드폰	Ministry of the technologies of the communication
식물 및 동물	Ministry of Agriculture and Hydraulic Resources
업종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the Local Development
측정기기	Institute of the Legal Metrology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부품	Ministry of commerce and hand craft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관세 코드(customs code)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수입쿼터

승용차의 경우 수입면장(Import License)에 따른 할당된 수의 차량을 수입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소형 차량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어느 정도는 튀니지에서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외국 자동차 모델의 부속품 수량에 따라 수입 할당량을 조절한다. 2016년 튀니지 정부가 수입차 관련 판매독점권제도를 도입했으며,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 L/C개설 절차 및 기술 점검, 가격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판매 독점권을 승인받기 위해 현재 튀니지 내 3만여 개 사의 요청이 대기 중이며, 후에 승인을 받은 판매독점권자는 7년이 지난 시점부터 독점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그 동안 매년 정해진 규모의 세금증

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산품의 경우 보통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몇몇 경우는 쿼터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튀니지는 종종 아랍과 북아프리카 국가산 농산품에 대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바. 비관세 장벽

튀니지에서는 특정지역 상품에 대한 우대관세가 부여되고 있다. 아랍권 및 북부아프리카(마그레브 권) 지역산 면화(cotton)는 무관세,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17%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EU국가와의 제휴 협정 및 모로코, 요르단 등(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산 상품에 비해 역 외국인 경우 차별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튀니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편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승용차와 제약품이다. 특히 제약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의 요청으로 인해 국내에서 제조되는 성분과 비슷한 해외 약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튀니지 정부에서 ‘Correlation’이라는 회보를 2006년 12월 31일에 발행했는데, 이 회보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때 회보의 상관성 리스트(Correlation List)에 이름이 올랐던 약품은 경우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2009년의 새로운 관세법 및 수입업자의 압력에 따라 통관 지연이 짧아지고 절차가 개선됐지만, 예전부터 특별한 이유없는 통관거부 등의 사례와 한국을 비롯한 무역흑자국 상품에 대한 수입 신청시 이를 보류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HS Code	유형	조사 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세라믹 타일 (Ceramic Tiles)	6907.10/90, 6908.10/90	세이프가드	‘15.7.14	-	기타	- 제조자 : Carthago Ceramic 등
유리병 (Glass Bottles)	7010.90	세이프가드	‘14.10.15	-	기타	- 제조자 : Societe Tunisienne de Verrerie

튀니지 Carthago Ceramic등 다수 기업들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상기 2가지 제품 수입 건에 대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 조사가 완료됐으며, 튀니지 대외거래위원회(Tunisian council for foreign commerce)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최근 장관 교체로 인해 최종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4. 대한 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현황

한국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튀니지 관세율

품목	관세율	예시
반도체	0~36%	반도체 제조기계(초음파, 전기 등) 0% 감광반도체 10% 음성기억장치 27%
자동차	0~36%	대형차(10인승 이상) 36% 화물차, 소형차 27%
선박	0%	유조선, 전함, 동력선, 준설선, 구조선 등 0%
전자제품	0~36%	핸드폰, 웹 카메라 0% 위성 TV수신기 15%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36%
가전제품	0~15%	전화기 0% 청소기 0~15% 믹서기, 다리미, 토스터 15%
기계류	0~36%	교류발전기 15% 감속장치 27% 터빈발전기, 변압기 36%
철강	0~36%	강철케이블 0% 주철 27%

5. 관세제도

가. 개요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시장개방 정도가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중 높은 편이나 여전히 높은 수입관세(최고 200%)가 적용된다. 또한 총 수입관세 부과 가격의 3% 가량이 세관 수수료로 추가된다. 대부분의 농산품은 고관세 품목이다. 튀니지 공업, 무역, 수공업연맹(UTICA)에서는 '세무, 관세 제도의 단순화'를 주제로 재무부장관과 함께 2012년 1월 5일 포럼을 주최했다. 주최측에서는 면세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세무, 관세 제도의 개혁에 관한 이번 건은 재무부장관에 의해 2011년 7월 처음 발의됐다. 투명한 시스템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

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튀니지인 및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 첫 번째, 200개의 세무법과 300개의 관세법을 재 분류.
- 두 번째, 분류된 법들에 대한 재정의
- 세 번째, 불필요한 법안의 삭제

나. 관세율 종류(NTR, GSP, MFN) 관세 및 비관세

튀니지는 수입품에 대해 품목에 따라 20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 2016년 재정법은 관세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추었다. 종전 10~15% 부과하던 원자재, 반제품 및 설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으며 농산품을 제외하고 27~30%의 관세를 부과했던 소비재에 대해서는 2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 관세의 3%에 해당하는 통관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율은 18%, 12%, 6%가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품목은 가장 높은 18%가 적용된다. 부가세 산정 기준(상품 비용)에 대한 최근 변화로 29%의 세금이 적용됐던 몇몇 소비재의 부가세율이 약간 상승하게 됐다.

소비세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인데 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고 250%에 달하는 소비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튀니지에서 운행되는 고급 자동차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루트로 수입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정식 유통사를 통해 수입된 제품일 경우 가솔린 차량은 100%, 디젤 차량은 1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튀니지는 WTO 회원국으로 상품분류방식은 HS Code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통상 10~45% 수준에서 결정된다. 통관은 수입 품목에 따라 수입 자유제, 수입 할당제 및 수입 금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수입자유 품목, 수입 허가 품목, 특정 제도 하의 수입, 국영 무역에 의한 수입으로 분류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은 비교적 크게 존재한다.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10~43%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 287%까지 부과되는데 상품 수입가, 관세, 소비세의 합산액을 기본가격(base price)로 해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 이외 내국세의 경우 사치품, 일부 내구재,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율이 최고 700%까지 적용된다.

이외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는데 특정지역 상품에 대한 우대관세가 부여되고 있다. 아랍권 및 북부아프리카(마그레브권) 지역산 면화(cotton)는 무관세,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17%의 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EU국가와의 제후협정 및 모로코, 요르단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산 상품에 비해 역외국인 경우 차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튀니지의 품목별 관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불어 및 아랍어). 그러나 2017년 6월 현재, 튀니지 관세율을 파악하기 위한 영문사이트는 여전히 개설 단계(under construction)에 있다.

- <http://www.douane.gov.tn/>

6. 주요 인증제도

가.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

튀니지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기관)의 정회원국이며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해 국제 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튀니지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에너지 표준기구)의 준회원국으로 전기 및 전자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동의한다.

7. 지식재산권

가.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튀니지는 파리 지적재산권 협회 가맹국가이며,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및 UNCTAD의 특허 및 상표법 보호에 동의한다.

특허출원은 특허승인과 마찬가지로 관보에 실린다.

- 이의신청은 특허출원이 제기된 날짜로부터 두 달 이내로 제출해야 함.
-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특허출원이 제기된 날짜로부터 20년임.
- 특허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있음.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통관, 관세, 세관 등과 관련되는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파악할 수 있고, 품목별 관세율은 물론 관세사 등 통관과 관련된 서비스 회사 등도 파악 가능하다.

- 세관 연락처
 -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 Rue Asdrubal Lafayette 1002 Tunis

- Tel: (216) 71-79-97-00
- Fax: (216) 71-79-16-44
- web-site: <http://www.douane.gov.tn/>

나. 주재국 무역항 및 공항개황

튀니스에는 비제르트, 라데스, 수스, 스팍스, 가베스, 자르지스 6개의 무역항과 스키라에 원유 터미널이 있다. 수심이 깊은 엔피다에 항구를 건설 중이며, 항구는 자동차, 여객선, 화물선, 벌크선, 오일 탱크를 적하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모든 일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튀니지의 항구는 해마다 대략 7,600선이 정박하며, 3,0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한다. 튀니지의 항구 인프라는 질적인 면에서 83위를 기록하며, 알제리(117위)보다 높고 모로코(43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료원: 세계 다보스 포럼 2015)

튀니지의 주요 공항은 9개가 있고, 튀니스, 모나스티르, 제르바, 타바르카, 토췌르, 엔피다, 가베스, 스팍스, 가프사에 있다. 138개의 외국 항공사가 있고, 유럽과는 매주 2,040차례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항은 총 1,905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자료원: 민간항공기구(OACA), 2011)

공항 인프라는 77위로 알제리(128위)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

(자료원: 세계 다보스 포럼 2015)

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Office de la Marine Marchande et des Ports(OMMP)
 - Adresse: Batiment Administratif 2060 la Goulette
 - Téléphone: 71 735 300
 - Fax: 71 735 812
 - Email: ommp@ommp.nat.tn
 - Site web: www.ommp.nat.tn
- Compagnie Tunisienne de Navigation(CTN)
 - Adresse: 5, avenue Dag Hammarskjöld 1001 Tunis
 - Téléphone: +33(1)86 65 00 00 / +49 322 2109 7400
 - Fax: 71 345 736 / 71 346 540
 - Email: cotunav@ctn.com.tn
 - Site web: www.ctn.com.tn
- Société Tunisienne d'Acconage et de Manutention(STAM)

- Adresse: 8, Rue Pierre de Coubertin 1000 Tunis
- Téléphone: (+216)71 259 733
- Fax: (+216)71 340 900/ (+216) 71 343 580
- Email: stam@stam.com.tn
- Site web: www.stam.com.tn

○ Office de l'Aviation Civile et des Aéroports (OACA)

- Adresse: Aéroport Tunis-Carthage 1087 Tunis-Carthage
- Téléphone: 71 755 000
- Fax: 71 781 460
- Email: relations.exterieures@oaca.nat.tn
- Site web: www.oaca.nat.tn

○ Société Tunisienne de l'Air (TUNISAIR)

- Adresse: Avenue 7 Novembre Charguia II 2035 Aéroport Tunis-Carthage
- Téléphone: 71 942 322
- Fax: 71 942 710
- Email: customercare@tunisair.com.tn
- Site web: www.tunisair.com.tn

○ Société Seven Air.

- Adresse: 10, rue de l'artisanat, Z.I Charguia II 2035 Tunis-Carthage
- Téléphone: 71 942 323
- Fax: 71 942 193
- Email: info@sevenair.com.tn
- Site web: www.sevenair.com.tn

Forwarding Agent

C.A.T.T	
Nom du commissionnaire	Walid Farhat
Adresse	46 Avenue Khaieredine Pacha 1002 Tunis
Code en douane	000770L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770
Téléphone	71790200
Fax	71797224

O.T.I	
Nom du commissionnaire	Med Chamsedine Khiari
Adresse	38 Rue Hédi Noura 2040 Rades
Code en douane	000771R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771
Téléphone	71807067
Fax	

Sté NOURLINE	
Nom du commissionnaire	Najoua Faydi
Adresse	01 Résidence Khayem 2040 Rades
Code en douane	000901C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1
Téléphone	71444333
Fax	71444399

Sté OPTIMA	
Nom du commissionnaire	Med Walid Maali
Adresse	Route de Sousse Km 7 Centre Ben Tanfous 2033 Mégrine
Code en douane	000902D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2
Téléphone	71425370 / 71426939
Fax	71425993
Sté COMATRAL	

Nom du commissionnaire	Rafika Gamoun
Adresse	Route du Bac Km 3 Z.I Rades
Code en douane	000903N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3
Téléphone	71469090
Fax	71736600

S.E.L.M.M.A Meyer&Meyer	
------------------------------------	--

Nom du commissionnaire	Med Salah Ben Kheder
Adresse	Zone Industrielle Rades 2040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5
Téléphone	71469333
Fax	71469328

S.O.M.A.S.T	
--------------------	--

Nom du commissionnaire	Chokri Oueghrem
Adresse	10 Rue Lilas 2034 Ezzahra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6
Téléphone	71448777 / 71449292
Fax	71449580

MONDIAL FRET	
---------------------	--

Nom du commissionnaire	Anis Graja
Adresse	Zone Portuaire Route du Bac 2040 Rades

Code en douane	000907B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7
Téléphone	71448944 / 71448948
Fax	71448760
A.S.T	
Nom du commissionnaire	Walid Ben Té kaya
Adresse	Zone Industrielle Rades 2040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08
Téléphone	71460522 / 71461226 / 71460723
Fax	71461025

TRANS CARGO LOGISTICS	
Nom du commissionnaire	Riadh Elloumi
Adresse	Zone Industrielle Poudrière Route Sidi Mansour 3002 Sfax
Code en douane	000909H
Bureaux d'exercice	Sfax
Numéro d'agrément	909
Téléphone	74286725 / 74286844
Fax	
CARTHAGE MARITIME SERVICES	
Nom du commissionnaire	Mohamed Samaali
Adresse	Avenue Farhat Hached Sidi Rzig 2033 Mégrine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10
Téléphone	71432735
Fax	71432661

Sté STRIM	
Nom du commissionnaire	Baghdadi Gorii
Adresse	Rue d'Athène Rades Port 2040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11
Téléphone	71449335
Fax	71449281

Sté MEDITERRANEAN AIR SERVICES	
Nom du commissionnaire	Ramzi Elloumi
Adresse	Rue n° 101 Imm. Astrée le Lac 1053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12
Téléphone	71860060 / 71799831
Fax	71861004

Sté INTERNATIONALE MARITIME	
Nom du commissionnaire	Slah Hedriche
Adresse	Rue Hédi Nouira Route du Bac 2040 Rades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13

Téléphone	71449079
Fax	71449460
Sté GENMAR	
Nom du commissionnaire	Imen Ben Massaoud
Adresse	Zone Portuaire 2040 Rades
Code en douane	
Bureaux d'exercice	Tunis
Numéro d'agrément	914
Téléphone	71469070
Fax	71469060

자료원: 튀니지 관세청

9.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소비자 성향 및 관습

튀니지는 중동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서구화된 국가로서 유럽과 아랍국가를 연결하는 Bridge를 자임하고 있다. 중동의 비즈니스 관행과 서구의 비즈니스 관행이 혼합된 형태이나 중동보다는 구미, 특히 서부유럽의 비즈니스 관행과 가까운 편이다.

샤스민 혁명 후 계속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이며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달하며 튀니지 상무부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규정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 구매선호도

튀니지 소비자들은 제품 관련 정보, 경쟁제품 정보, 브랜드, 가격 및 질을 많이 따진다. 93%의 튀니지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를 잘 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판매 중인 제품에 관련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78%의 소비자는 제품의 질을 비교한 후 구매를 하며 65%는 많은 제품을 비교한 후 구매를 한다. 또한 튀니지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인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 한류

상품인지도

튀니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과 공공사업에 관련된 한국 상품 및 기업이 잘 알려져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LG와 삼성이 많이 알려져 있다.

한류 동향

2013년 4월 14일 튀니지 최대 규모의 한국문화 팬클럽 TOKE(Tunisia Organization of Korean Cultural Exchange)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가 후원한 한류행사 '올 댓 코리아(All That Korea)'가 개최됐다. 2013년 6월 30일 튀니지 대사관의 초청으로 'K팝 월드 페스티벌 2013' 튀니지 무대에서 팝 밴드 '루나플라이'가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했다.

2014년 6월 27일 창원에서 열릴 '2014 K-POP World Festival'의 예선이 튀니지에서 개최됐다.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과 LG는 한국 가수 다빗(Dabit)을 초청했다. 현재 튀니지에는 25개의 한류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MBC 인기드라마 '종합병원'이 튀니지에서 방송됐다.

다. 유통채널

프랑스에서 들어온 'Carrefour', 'Monoprix', 'Geant'와 같은 대형 마트가 있어, 이들이 주 유통채널을 이룬다.

10. 바이어 발굴

가. 각종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 방법

튀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현지 에이전트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이전트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대부분의 튀니지 기업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며 마케팅이나 유통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환영할지 모르나, 경영권을 외부인에 양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유통 혹은 판매 계약 시 재무적 의무나 업무 수행 평가에 대해 매우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예비 파트너를 위한 검증기간 또한 계약에 포함해야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튀니지 법은 일반적으로 상업 계약을 유지해나가려는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계약 관계를 맺은 이후 유통업자나 에이전트를 바꾸기가 힘들다. 튀니지 상법은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는 튀니지 소액 파트너에 불균등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튀니지에서의 독점 유통 계약은 법으로 금지돼있다.

튀니지의 프랜차이즈 시장의 전망은 밝다. 2010년 6월과 7월 이후 튀니지 정부의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거래 계약 조건의 아웃라인이 정해지고 규제가 완화돼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영역의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비 지정 영역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2010년 11월에 튀니지 프랜차이즈 협회가 만들어졌고, 튀니스 상공회의소(CCI)와 지중해 상공회의소(ASCAME)가 공동으로 매년 12월경에 튀니지에서 프랜차이즈 쇼를 추진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직접판매의 경우 튀니지인들이 현지 대리인이 없는 브랜드나 새로운 상품 및 기술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A/S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직접 소개하는 것은 좋은 판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합작 투자나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양측이 수공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국제 중재 재판소;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와 같은 사례 참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영권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품질의 통제나 다른 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문도 필요하다. 합작 투자를 고려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실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 SIGMA ALGERIE(International)
 - Contact : M. Hassen ZARGOUNI
 - 소재지: Angle 43, rue Alain Savary 1002 Tunis Belvédère Tunisie
 - 전화: (+216) 71 28 69 27/ Fax: (+216) 71 28 65 34
 - E-mail: dg@e-sigmaconseil.com
 - 홈페이지: www.e-sigmaconseil.com
 - 주요 업무: 투자관련 국제적 컨설팅사로 시장조사도 수행

- La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de Tunis
 - 소재지: 31, Av de Paris - 1000 - Tunisie
 - 전화: (+216) 71 247 322 / Fax: (+216) 71 339 422 / 354 744
 - 비고: 튀니스 상공회의소
 - 홈페이지: <http://www.ccitunis.org.tn>
 - E-mail: ccitunis@planet.tn

- UTICA (Union Tunisienn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 소재지: Cité administrative, lot N° 7, Cité El Khadhra 1003, Tunis, Tunisie
 - 전화: (+216) 71 142 100/ Fax: (+216) 71 142 000
 - 비고: Tunisian Association of Industrialists and Traders
 - 홈페이지: www.utica.org.tn
 - E-mail: contact@utica.org.tn

11.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첫 상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여러 공급업체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고 거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첫 대면을 통한 상담 이후에 충분한 교신이 이루어진 후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가 상당부분 서구화돼 있지만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급을 삼가야 하며, 이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나. 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개방정책의 영향으로 이슬람 전통이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랍인으로 여전히 종교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여타 아랍인과 마찬가지로 애항심이 강하며 혈연을 매우 중시하고 가족을 매우 중시하며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을 좋아한다. 오른손은 좋은 곳에 왼손은 나쁜 곳에 쓰게 돼 있으므로 인사 또는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인은 서두르는 기질이 있는데 반해 튀니지인은 서두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며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튀니지인은 언뜻 보기에는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꼼꼼하며 숫자에도 강하다.

다. 기업문화

튀니지는 오랜 기간 프랑스 식민지를 경험했으며 또 일찍이 개방정책을 추진, 인근의 전통 회교국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근대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갖고 있다. 프랑스어를 구사하면 비즈니스가 편하게 진행된다고 아랍어가 공용어이기는 하지만 상류 계층이나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 프랑스어 사용이 보편화돼 있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랍어만 구사 가능한 사람들에게 대해 우월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비즈니스 관련 각종 안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프랑스어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12.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주요전시회 사이트

전시회나 무역관련 이벤트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 무역전시회
- <http://www.biztradeshows.com/tunisia/>
- Tunis International Fair
- <http://www.fkram.com.tn/>
- Sfax Fair
- <http://www.foire-sfax.com/>

나. 2018년 개최 예정 주요 전시회

- 2018.2.2~11 Salon du Meuble de Tunis - Tunis Exhibition of furniture
Tunis, tunisia
www.fkram.com.tn
- 2018.4 SIB SFAX - International Exhibition on Computer and Office Automation
Sfax, Tunisia
www.foiredesfax.com/

- 2018.5 MEDFOOD & SMA - Food and Olive Oil Mediterranean Exhibition & Agriculture Exhibition
Sfax Tunisia
www.foiredesfax.com/
- 2018.5 CARTHAGE - Professional Trade Fair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Tunis Tunisia
www.fkram.com.tn
- 2018.10 TEXMED - International Textile and Clothing Exhibition
Tunis Tunisia
www.cepex.nat.tn
- 2018.10 SIAT -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echnology Exhibition
Tunis Tunisia
www.tunisie.com/APIA/
- 2018.11 SIB IT - International Exhibition on Computer and Office Automation
Tunis tunisia
www.sogefoires.com
- 2018.12 DAR DECO Furniture, Decoration & Garden Exhibition
- Salon de la Decoration et du design
Tunis, Tunisia
www.fkram.com.tn

13.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튀니지는 제도적으로 수출여건이 상당히 완비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어려움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수입허가나 LC개설을 위한 행정처리의 지연
- 휴일의 과다: 생산직 연 18일, 관리직 연 30일(병가 별도), 해당 휴가 외 법정 공휴일(연 14일), 라마단 회교금식기간 1개월 및 하계 2개월(7~8월)간 오전 근무
- EU와 근접성 등 현지특성에 알맞은 수출전략 수립
-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등의 공급 부족
- 무역관 부재 지역인 관계로 특히 수출미수금 해결 난관
- 테러 위험 상존으로 인해 현지 출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투자국의 지리적 이점

튀니지는 지중해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대륙으로부터 불과 140km 떨어져 있어 유럽, 북아프리카 지역, 아랍국가 시장에 대한 우회 수출이 용이한 편이다. 유럽의 경우, 튀니지 local content가 40% 이상인 상품의 경우 튀니지 산으로 인정, 유럽으로의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다. 튀니지를 중심으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총 8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투자 매력도

대튀니지 투자의 이점으로는 아래 사항을 들 수 있다.

- 정치 민주화 전망 및 지속적 경제성장
- 유럽과의 경제제휴협정 및 FTA 체결(1996년 체결, 1998년 일부 발효 및 2008년부터 FTA 전면 발효)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가능
- 인근 중동국가와의 FTA 체결(2004년 2월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와 Agadir 협정 체결) 및 북아프리카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거점으로 역할 가능
-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 노동시장 안정 및 높은 교육수준(문맹률 22%)으로 고급, 우수 현지인력 확보 용이
- 양호한 인프라(항만, 공항, 도로, 통신, 전기 등)

현재 튀니지에는 3,350개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총 35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1년 동안 23억 6,59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사업여건

튀니지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GDP의 6~8%가 공공교육에 투입돼 25%의 튀니지인이 정규교육 내지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는 최고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튀니지 경제는 최근 들어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개방화, 자유화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신인도는 R&I ancienne JBRI(BBB+), Moody's(Baa 3), Standard & Poor's(BB), JBRI(BBB+) 등을 받았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튀니지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신용 등급을 부여한다.

튀니지 신용등급 현황

구분	Moody's	Fitch	S & P
튀니지	Baa3	BB+	BB
대한민국	A+	Aa3	AA-

자료원: Moody's, Fitch, S&P

튀니지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교통, 통신, 전기, energy 수급 등 여러 면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적 시책으로 구축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FIPA(튀니지 투자유치국) 자료에 의하면 튀니지는 9개 국제공항(질적인 면에서 47위/ 이탈리아 71위)을 보유하고 있고, 7개의 상업용 항구(질적인 면에서 53위/ 이탈리아 81위)가 있다. 2009년 자료에서 네트워크 접근도는 38위(이탈리아 45위, 터키 61위)에 해당하며, 23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7개 테크노 폴, 6개 사이버 파크가 있다. 122개 산업단지 (2500HA)와 31개 산업단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0-2011년 다보스 포럼에 의하면 튀니지의 테크노 파크는 아프리카와 마그레브 지역에서는 1번째, 138개국에서는 35번째를 기록했다. 그리고 사업 개시 평균 소요 일수는 11일로 이탈리아(13일)와 스페인(47일)보다 적게 걸린다.

2016 튀니지 각 지표 별 순위

	지표명	순위
1	사업개시(Starting Business)	103
2	건설인가 획득(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57
3	전력 이용(Getting Electricity)	38
4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86
5	신용획득(Getting Credit)	126
6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105
7	조세 납부(Paying Taxes)	81
8	대외 교역환경(Trading Across Borders)	91
9	계약 실행(Enforcing Contracts)	81
10	지불불능 해결(Resolving Insolvency)	57

자료원: Doing business 2016(5월)-Tunisia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튀니지는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1993년 외국인 투자법(A New Investment Code)을 제정, 특히 수출기업을 위해 양호한 투자 여건을 조성, 외국인 투자를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국제 협력투자부에서 총괄하며 산하 외국인 투자 진흥청(FIPA/www.investintunisia.com)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행정관료주의 등도 애로 사항이다. 튀니지 정부는 2009년까지 red tape의 90%를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오랜 행정관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체제 안정 저해 및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개혁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구조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 투자 위험도

제도적으로 튀니지의 투자여건이 상당히 완비돼 있으나 실제로는 내부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도 내재하고 있다. 수입허가나 LC 개설을 위한 행정 처리의 지연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로 고용조건의 어려움이 있으며 근로 시간의 경우 업종별로 주당 40~48시간, 1일 근무시간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간 외 수당은 주당 4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당 통상 임금의 1.75배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포르투갈, 그리스 등과 비슷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동자들의 휴일이 너무 많은 것도 단점이다. 생산직은 연 18일, 관리직은 연 30일이며 병가는 별도이다. 또 법정 공휴일(연 14일)과 라마단 금식기간 1개월 및 하계 2개월(7~8월)간은 오전 근무만 하고 있어 조업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많다. 튀니지 상주 외국기업의 비 현지인 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 발급제한 관련 법령도 외국기업의 지사설립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튀니지 정부는 외국기업의 요청을 수용해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정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허가(work permit)와 거주허가 재발급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최고 8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자국민의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비 현지인 직원수도 최고 4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대 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 갱신은 불가하다. 현 투자법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수출기업(생산의 80% 이상 수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튀니지 당국은 수출기업이 생산의 최고 20%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도록 허용 하고 있다. 그러나 튀니지 당국이 비율을 결정하도록 돼있고 대개의 경우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 내수시장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외국 업체의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기업들에 비해 한국 등 아시아 기업은 멀리 떨어져 있어 현지 실정에 어두운 관계로 우회 수출을 위한 배후시장 개척이 어렵다.

나. 투자 장점

유럽, 북아프리카 지역, 아랍국가 시장에 대한 우회 수출이 용이한 편이다. 유럽의 경우, 튀니지 local content가 40%이상인 상품의 경우 튀니지 산으로 인정, 유럽으로의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숙련된 인적자원이 풍부한 편이며 튀니지 정부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GDP의 6~8%가 공공교육에 투입돼 25%의 튀니지인이 정규교육 내지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는 최고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튀니지 경제는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이전에 매년 5% 수준의 경제성장을 보였으며 개방 자유화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교통, 통신, 전기, 에너지 수급 등 여러 면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적 시책으로 구축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FIPA(튀니지 투자유치국) 자료에 의하면, 9개 국제공항 (질적인 면에서 47위/ 이탈리아 71위)을 보유하고 있고, 7개의 상업용 항구(질적인 면에서 53위/ 이탈리아 81위)가 있다. 2009년 자료를 통해서는, 네트워크 접근도는 38위(이탈리아 45위, 터키 61위)에 해당하며, 23개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7개 테크노 폴, 6개 사이버 파크가 있다. 122개 산업단지 (2500HA)와 31개 산업단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0-2011년 다보스 포럼에 의하면, 튀니지의 테크노 파크는 아프리카와 마그레브 지역에서는 1번째, 138개국에서는 35번째를 기록했다. 그리고 사업 개시 평균 소요 일수는 11일로 이탈리아(13일)와 스페인(47일)보다 적게 걸린다.

다. 투자 유치 기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은 국제 협력 투자 부에서 총괄하며 산하 외국인 투자 진흥청(FIPA/www.investintunisia.com))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투자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라. 투자 장려 분야

종전에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전자와 섬유분야에서 발행했으나 최근에는 농업, 항공, 통신 및 서비스 산업도 유망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 농업
- 제조업
- 식품 가공 산업
- 수출 및 산업 관련 서비스
- 공공사업
-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분야
- 어업
- 관광산업
- 수공업
-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 보건

- 건물개발업
- 영화산업 및 영화 제작
- 직업 교육

교육

- 무기, 무기 부품과 탄약 제조
- 카펫 제조
-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 농업 컨설팅
- 상업 광고

마.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과도한 외국환의 해외유출, 고용 및 국내경쟁업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요식업, 부동산업, 소매유통업 및 기타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는 제한되고 있다. Off-shore기업(전량수출기업)은 생산의 최소 80%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외국자본의 66~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On-shore 기업은 비제조업의 경우, 외국자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49%로 제한되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100%까지 가능하다. 국내회사(onshore company)에 외국자본이 49%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제한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농지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단, 40년 한도 장기 임차계약은 보장되고 있다. 현행 투자유치 법에 의하면 국내 유통업(도매업), 에너지 산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며 여타 분야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다.

바. 투자 유치정책 및 전망

튀니지 정부는 외국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장려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13년 11월 12일 소집된 튀니지각료회의에서 신규 투자법안 최종안이 채택됐고 제헌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Nouredine Kaabi 총리실 개발담당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투자장려법에서 행정정차상 정부 사전승인이 필요한 부문들을 감소해 투자자들의 시장접근에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완했으며 ‘투자자유의 원칙 준수, 투자자의 권익 보장, 분쟁 해결방안 마련, 부동산 소유권’ 등이 새로 도입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작성기간 14개월 이상이 소요된 튀니지 신규 투자법안은 거버넌스, 투명성, 지속가능개발, 경쟁력 제고 등의 원칙을 토대로 지역, 통합개발,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활동 강화, 지식경제 및 수출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정부조달 부문의 부정부패 방지, 거버넌스 향상, 공공서비스 운영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감독위원회(Comite des Controleurs d’etat)’ 정관 작성, ‘공공조달최고기관(Haute Instance des Marches Publics)’ 창설 및 공공조달 감독관들의 약관 기초에 대한 법령안도 각각 채택했다. 공공은행 부문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참여, ‘정보통신기술개발기금’의 활동 재정지원방안 및 정부의 정기 국정업무 관련 법령안 등

이 차례로 채택됐으며 튀니지-아프리카개발은행 간 체결한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무상지원 협정 또한 승인했다.

아울러 튀니지의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새로운 공공 민간 파트너십, 경쟁, 도산 및 재생에너지 등 꼭 필요한 구조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중앙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담보됐으며 신투자법 제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실행은 더 높은 국내외투자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4월 1일부로 발효된 투자법(보다 간편하고 명료하며 투명한 규정들로 이루어짐)은 투자 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튀니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투자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전체 경제의 40~60% 정도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밀수 등)도 외국인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제도

가. 해당 국가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지급내역

조세감면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조세 감면제도는 튀니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5~100% 감면, 11년 이후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고 있다. 수출에서 오는 이윤에 대한 세금을 최초 10년간 면제하며 이후에는 50%를 면제하고 있다. 재투자 이윤에 대한 내국세가 면세되고 있으며 현지 조달이 되지 않는 자본재도 면세적용을 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고용 보조금

환경 보호 산업, 지역 개발 사업, 개발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 환경보호산업 등 특별,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환경보호산업(20%), 개발지역사업(8%)등 정책사업에는 투자액의 일정률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off-shore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혜택이 주어지나 비수출기업의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가 없다.

투자 인센티브 지급 절차

관광, 수산업, 교통, 교육, 직업훈련, 통신, 보건, 영화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진흥청(FIPA)에 투자신고서 제출(24시간 내 처리), 정관 등록(24시간 내 처리), 설립신고서 제출(즉시 처리), 등기소에 등재(즉시 처리)

나. 지원기관

-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oreign Investment
- 주소: 98, Avenue Mohamed V, 1002 Belvedere Tunis

- Tel: (216-1) 798-522; Fax: (216-1) 799-069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주소: Rue Slaheddine el Ammami, 1004 Tunis

- Tel: (216) 71 752 540

- Fax: (216) 71 231 400

- E-mail: boc@fipa.tn

- Web: www.investintunisia.tn

○ Agricultural Investments Promotion Agency

- 주소: 62, Rue Alain Savary - 1003 Belvedere Tunis

- Tel: (216-1) 288-400; Fax: (216-1) 796-453

- E-mail: prom.agri@apia.com.tn

- Web: www.apia.com.tn

○ Tunisian National Tourism Office

- 주소: 1, Av. Mohamed V - 1001 Tunis

- Tel: (216-1) 341-077; Fax: (216-1) 350-997

○ The Export Promotion Center

- 주소: 28, Rue Gandhi - 1001 Tunis

- Tel: (216-1) 350-801; Fax: (216-1) 353-683

○ Tunisian External Communication Agency

- 주소: 3, Av Jean-Jaures - 1001 Tunis

- Tel: (216-1) 345-866; Fax: (216-1) 353-445

다. 해외투자유치기관

○ Agency for Agricultural Investment Promotion(APIA)

- 주소: Central Cooperation Department 62, rue Alain Savary 1003 Tunis-El Kadhra

- 전화: 216-1-771 300

- E-mail: Prom.Agr@apia.com.tn

- 기관: 튀니지 농업투자진흥청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gency(FIPA)

- 주소: 63, rue de Syrie, 1002 Tunis- Belvedere, Tunisia

- 전화: 216-1-792 144

- 팩스: 216-1-782 971

- Web-site: www.investintunisia.com

- E-mail: fipa.tunisia@mci.gov.tn

- 기관: 튀니지 외국투자진흥청-외국투자자 및 합작투자 전담기관: 투자정보 제공, 외국 투자 관련 기관 (정부 부처, 유관기관, 은행 등) 소개

- Abstr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to Tunisia in all fields(except for energy), as well as joint venture business between local companies and their foreign counterparts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개요

튀니지투자청(FIPA)에 의하면 2016년 튀니지의 총 외국인투자는 1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국인투자의 47%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38%), 서비스업(14%)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통업분야는 1%로 극히 미미하다. 2016년 튀니지 최대 투자국은 프랑스로 1억 7,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독일(7,300만 달러), 영국(4,300만 달러) 순이다.

2016년 현재, 3,350개의 외국인 회사들이 직접 또는 합작형태로 튀니지에 진출했으며 그 국가별 분포는 프랑스 40%, 이태리 20%, 독일 10%, 벨기에 8%, 아랍국가 8% 로써 총 35만 4,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약 1,000개의 업체가 진출, 10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이태리는 600개의 업체가 4만 6,000명을, 독일은 250개 업체가 3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2,800개 업체 중 2,000개 업체가 수출기업이다. 2010년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계속 되는 정치 불안으로 인한 위협 증가와 튀니지 증권 거래소에서의 부진한 활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감소시키고 있다. 외국인투자진흥기관(FIPA)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5년 1분기 사이 외국인 투자 흐름(flow)은 4억 9,600만 튀니지 디나르까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4억 7,560만 튀니지 디나르에 달하는 2010년 1분기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한편 튀니지 해외투자진흥원(FIPA)에 의하면 2017년 1/4분기 외국직접투자가 전년도 동기 3.96억 디나 대비 16.6% 증가한 4.62억 디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분야별 투자 규모는 에너지(2억 4,600만 디나, 전년도 동기 대비 -3.6%), 산업(1억 4,400만 디나, 전년도 동기 대비 +63.3%), 서비스(5,900만 디나) 순으로 조사됐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2년째 외국투자가 전무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외국기업 투자사례

오라스콤 텔레콤(이집트, www.orascomtelecom.com)

- 2002년 5월 튀니지 정부로부터 GSM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
- 라이선스료는 4억 5,400만 달러로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매 5년마다 계약 갱신
- 현재 가입자수는 365만 명으로 시장 점유율은 47.8%
- 튀니지에서의 사업자명: 튀니지아나(www.tunisiana.com)
- 튀니지 사업자명의 선정과정에서 Tunisiana라는 이름을 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친근감과 함께 튀니지를 존중하는 듯한 심리적 광고 효과

튀니지아나 판매 매장



PSEG Global(미국), 마루베니(일본)

- 1998년 라데스 지역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471MW 화력발전소를 20년 BOT 방식으로 건설하는 계약 체결
- 투자액은 2억 5,000만 달러로 지분은 PSEG(35%), Siche Energies(32.5%), 마루베니 (32.5%)
- 2002년 발전소 완공과 함께 튀니지 전기수요량의 25% 공급
- 발전에 필요한 천연가스는 알제리와 BG 튀니지아 미스카르 가스전에서 공급되고,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는 전량 국영전기가스공사인 STEG(www.steg.com.tn/en/accueil.html)에 20년 계약으로 공급
- 2004년 PSEG 소유지분 60%를 BTU(www.btuventures.com)전력 회사에 매각하고 프로젝트에서 철수. 현재지분은 BTU (60%)와 마루베니(40%)
- 발전소명: 카르타고 전력회사(CPC: www.carthagepower.com.tn)

카르타고 전력회사 운영발전소



두바이 투자 그룹(TIG, www.dubaigroup.com)

- 2006년 국영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국영전화회사 튀니지 텔레콤 (www.tunisietelecom.tn)의 지분 35%를 두바이 투자그룹에 매각
- 투자액은 22억 5천 만 달러로 두바이 투자그룹이 중동-북아지역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함.
- 이후 두바이 투자그룹은 말타콤(현재 GO, www.go.com.mt로 개명됨)의 지분 60% 인수

브리티쉬 가스(www.bg-group.com)

- 1989년 Tenneco사의 튀니지 지분을 인수하면서 튀니지 시장 진출
- 1996년 미스카르 가스전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0억 달러 투자
- BG는 현재 튀니지에서 최대 천연가스생산자로서 미스카르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튀니지 국내수요의 50% 총당
- 현재 12억 달러 규모의 하스두루발 가스전 개발 사업 진행 중이고, 아밀카르와 올리스 두 가스전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음.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의 대 튀니지 투자 진출은 지난 1971년 요식업을 필두로 1990년대 초 제조업 분야에서 6건의 투자신고(금액 271만 달러)가 있었으나 실제 투자 건수는 3건, 95만 달러로 미미했다. 투자 분야는 조화, 인테리어, 폐휴지 재생,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경공업 분야에 머물렀다. 2017년 7월 현재 총 신고건수는 14건, 신규법인 수는 7개, 신고금액은 639만 8천 달러이나 실제 투자금액은 374만 3천 달러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나. 우리기업 투자 통계 현황

한국기업투자 통계 현황(1980~2016년)

(단위: 건, 개, 천 달러)

진출형태 (법인 구분)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지사	1991	1	1	600	1	600
	1997	1	1	848	1	848
	2014	1	0	0	0	0
	합계	3	2	1,448	2	1,448

지점	2012	1	0	3	0	0
	2016	1	0	10	0	0
	합계	2	0	13	0	0
법인	1980	1	1	24	1	12
	1991	1	1	95	1	40
	1992	1	0	43	0	0
	1993	1	1	70	1	43
	1995	2	0	105	0	0
	2007	2	1	4,500	3	2,100
	2016	1	1	100	1	100
	합계	9	5	4,937	7	2,295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최신 자료(2017년 7월 현재)

다. 업종별 직접 투자 동향

현지 투자진출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진출해 있다.

5. 한국기업 진출현황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지사가 주재 중이며 현지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핸드폰 및 가전제품 등을 튀니지에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현지업체와 제휴, 가전중심으로 조립생산 개시, 휴대폰 등 판매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전자, 전기, 통신분야 등의 LG제품을 조립, 생산하는데 필요한 반제품을 튀니지 제조회사에 공급하고 인근 국가(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에 대해 완제품 판매 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설진출 현황으로는 현대건설이 2001년 지중해 연안국 올림픽 대회 및 2004년 아프리카컵 대회 주 경기장으로 사용된 라데스 스타디움과 부대시설을 설립했다. 한편, 2007년 유라코퍼레이션이 튀니지에서 자동차 전기배선 등 자동차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대튀니지 투자 누계액은 364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튀니지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실적은 전무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하수 폐기물 환경,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나타났다.

튀니지 진출 국내기업 현황

회사명	설립년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주요 활동사항
삼성전자	1997	법인	제조업	전자	칼라TV 현지업체와 제휴해 조립 및 판매
유라코퍼레이션	2007	법인	제조업	자동차부품	자동차 전기배선 제조
엘지전자	2010	법인	제조업	전자	현지업체 제휴, 에어컨, 냉장고, TV, 통신기기, 조립 및 판매, 무선통신 관련 전자통신 연구소 설립 및 운영

튀니지 진출 국내기업 연락처 (2017년 7월 현재)

- LG전자(Tunis 소재) 대표전화 : (216) 71-194-350
- 삼성전자(Tunis 소재) 대표전화: (216) 71-860-411
- Yura Corporation(Kairouan 소재) 대표전화 : (216) 77-270-207
- 현대엔지니어링(Gafsa 소재) 대표전화 : (216)76-266-780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주)유라코퍼레이션(직접투자)

유라코퍼레이션 튀니지 공장



-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주)유라코퍼레이션이 2007년 아시아 기업으로는 최초로 튀니지에 직접 투자 진출
- 2007년 11월부터 튀니지 생산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제조부품을 전량 슬로바키아 기아자동차 공장 및 체코 현대자동차 공장에 납품

- (주)유라코퍼레이션 튀니지 진출은 2008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튀니지와 EU 자유무역협정의 수출관세 면제 조항을 활용한 사례로 평가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투자법

1993년 외국인투자법(A New Investment Code)을 제정, 경제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협력개발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총괄하며, 산하 외국인 투자진흥청(FIPA)이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investintunisia.tn 참조 요망

8.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투자여건이 상당히 완비돼 있으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어려움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수입허가나 LC개설을 위한 행정처리의 지연
- 고용조건의 어려움: 근로시간이 업종별로 주당 40~48시간, 1일 근무시간 10시간 초과 불가, 시간 외수당은 주당 4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당 통상 임금의 1.75배 지급
- 휴일의 과다: 생산직 연 18일, 관리직 연 30일(병가 별도), 해당 휴가 외 법정 공휴일(연 14일), 라마단 회교금식기간 1개월 및 하계 2개월(7~8월)간 오전 근무
- 현 투자 법이 많은 투자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수출기업(생산의 80%이상 수출)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론적으로 수출기업도 생산의 최고 20%를 내수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나 튀니지 당국이 비율을 결정하도록 돼있고 대개의 경우 20%에 못 미치는 수준

나. 국별 투자위험도(RISK)

- 관련기관 방문 및 현지출장을 통한 사전조사 철저
- 현지 정치체제(대통령 중심 통치체제) 및 사회성향(아랍 이슬람문화, 프랑스로부터 사회주의 영향) 등을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

- EU와 근접성 등 현지특성에 알맞은 투자전략 수립
- 산업기반이 취약해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등의 공급 부족
- 첨단고급인력 및 천연자원 부족
- 테러 위험 상존

다. 비즈니스환경 중간 수준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

- 조사대상국 190개국 중 77위 (64.89점)
- 창업 103위/ 85.01점
- 건축허가 59위/ 73.34점
- 전력확보 40위/ 82.32점
- 재산신고 92위/ 63.22점
- 크레딧확보 101위/ 45.00점
- 소수투자가보호 118위/ 46.67점
- 세금납부 106위/ 68.96점
- 역외교역 92위/ 70.50점
- 계약행위 76위/ 59.33점
- 파업결정 58위/ 54.53점

9.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평균 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연혁

최저임금(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과 농업분야 최저임금(SMAG: Salaire Minimum Agricole Garanti)은 1973년 규정(Decret no 73-3247 du 26 mai 1973)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2015년 11월 13일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비농업분야 최저임금(SMIG)

- 주 40시간 체제: 월 289.639 TND(튀니지 디나르), 시간당 1.671 TND
- 주 48시간 체제: 월 338 TND, 시간당 1.625TND

농업분야최저임금(SMAG)

- 일반 근로자: 일일 13TND
- 전문직근로자: 13.693 TND
- 기술자: 14.303 TND

나. 노무관리

임금

튀니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SMIG)이 정해져있는데 제조업 기준 주 40시간 근무에 월 289.639튀니지 디나르(약 120달러)이며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338튀니지 디나르(약 141달러)이다. 임금 및 봉급은 피고용자 및 고용주간에 자유로이 논의될 수 있지만,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주변 마그레브국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근로시간

주 48시간

휴일과 휴가

2017년도 법정 공휴일

1월 1일	신년
1월 14일	혁명 및 청년 기념일
3월 20일	독립 기념일
4월 9일	순교자의 날
5월 1일	노동절
6월 25~27일	라마단 종료일
7월 25일	공화국 선포일
8월 13일	여성 및 가정의 날
9월 1-3일	희생절
9월 22일	이슬람 신년 헤지라
10월 15일	Muharramd(이슬람력 신년)
12월 1일	예언자 탄신일

노사 협의회

튀니지의 노동법(Code du Travail)은 고용부(Ministere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e l'Emploi)에서 관장하며,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전국의 유일 노조이며 전 노동자의 1/3이 회원인 노동연맹협회(UGTT-Union General des Travailleurs Tunisiens)와 사용자기구(UTICA-Union Tunisienne de l'Industrie,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3년마다 갱신) 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노동계약 집행과 관련한 개별적 분쟁은 3자로 구성된 노동 법원(Conseil de prud'hommes)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10. 조세제도

가. 현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율은 30%, 수출입 관련 기업, 자유무역지역내의 기업 등은 세제상 혜택 부여

개인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15%(연소득 1,500~5,000튀니지 디나르)
- 20%(연소득 5,000~10,000튀니지 디나르)
- 25%(연소득 10,000~20,000튀니지 디나르)
- 30%(연소득 20,000~50,000튀니지 디나르)
- 35%(연소득 30,000튀니지 디나르 이상)

부가세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18%, 12%, 6% 부과

나. 외국투자 기업을 위한 적용 조세제도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

튀니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5~100% 감면하고, 11년 이후는 최저 10% 세율 적용한다. 수출 기업, 환경보호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하며, 환경보호산업(20%), 개발지역사업(8%) 등 정책사업에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11. 금융제도

가. 금융제도 개요

외환관리는 중앙은행(BCT: Banque Centrale de Tunisie)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대금 지급, 무역 외 거래 지급 등에 대한 인증업무는 외국환은행에 위임돼 있다. 외국과의 결제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외국통화와 외국환계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과실송금

외환관리규정상 자본금의 66% 이상이 외화로 조달되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off-shore 기업으로 간주돼 본국으로의 이익송금에 제한이 없는 등 외환관리규정의 대부분 규제조항이 면제된다.

12. 외환제도 및 자금조달

가. 외환제도

튀니지 디나르는 환 계좌 거래로 변환 가능하다. 외국 무역을 하는 회사나 개인은 중앙 은행에 변동환 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수익과 주식 판매로 인한 이익금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으나 다른 송금의 경우 중앙은행(BCT: Banque Centrale de Tunisie)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무역 관련 거래는 신용장에 의해 어려움 없이 이행된다. 로열티는 건별로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정부 부처에서 승인받도록 돼 있다(프랜차이즈에 대한 로열티는 중앙은행에서 승인됨). 기술의 가치 평가와 특정 계약의 지속에 따라 로열티 비율이 반영된다.

나. 현지 자금조달 개요

튀니지 디나르는 완전히 환전되는 통화가 아니며, 해외로부터 가져오거나, 혹은 해외로 가져가는 것이 불법이다. 환 계좌 거래로 환전이 가능하나(무역 및 투자 등의 활동에 의해) 몇몇 외화 환전시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1년 혁명 이전 튀니지 정부는 2014년까지 완전한 태환성을 공언했지만 현재 튀니지의 정치적 변환과 더욱 강력한 금융 분야 개혁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거주자들은 대부분의 환거래 규제에서 자유롭다. 외환 규제에서 비거주 기업이란 전체 자본 구성의 66% 이상을 소유하며 그 구성이 외국에서 들어온 외환으로 돼 있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직접 혹은 분산 투자에 대한 반대 급부의 과실송금이 자유롭다. 이것은 자본 혹은 이자, 배당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된다.

튀니지로 들어오는 외화의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얼마든지 튀니지 디나르로 환전 가능하다. 다만 2만 5,000튀니지 디나르(약 1만 9,250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액수일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5,000튀니지 디나르(약 3,850달러) 이상 예치하거나 해외로 재반출 할 경우 외화 반입 시 신고해야 한다. 튀니지 세관 당국은 출국 시 외화 환전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튀니지 디나르는 내부 은행 시장에서 거래된다. 중앙은행에서 유로, 미달러, 일본엔화 바스켓 방식에 근거해 확립한 관리 변동(managed float)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자금조달처

세계은행(World Bank) 계열사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튀니지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있다. 이 은행은 주로 환경, 금융, 민영화 및 산업구조조정, 도로건설, 댐 및 관개 분야에 집중

되고 있으며, 2016년 IBRD는 튀니지 북부 폐수물처리프로젝트에 1,800만 달러 펀드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유럽투자은행(EIB)도 튀니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6년 동 은행은 Bizerte시의 교량 건설(1억 3000만 달러), 송전사업(5000만 달러), 오수처리(7500만 달러), 통신망 인프라 구축(1억 1000만 달러)를 대출한 바 있다.

V. 비즈니스 참고정보

1. 물가정보

튀니지는 관광국가로서 다양한 가격대의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있다. 튀니스 시내에 소재하는 호텔로서는 Sheraton 호텔이 가장 고급(싱글의 경우 230달러 정도)이고, 중급호텔(Africa, Diplomat, Ambassadeurs 호텔 등)은 약 80달러에 투숙이 가능하며, 50달러 전후의 호텔도 다수 소재한다.

튀니지 물가

(단위: 달러)

구분	항목	가격
레스토랑	식사(비싸지 않은 레스토랑)	2.15
	식사 2인분(중간급 레스토랑, 3코스)	12.88
	맥도날드 세트 메뉴	3.33
	국산 맥주(0.5 liter draught)	1.22
	수입 맥주(0.33 liter bottle)	1.07
	카푸치노(Regular)	0.70
	코카콜라/펩시(0.33 liter bottle)	0.48
	물(0.33 liter bottle)	0.21
마켓	우유(1 litter)	0.48
	상추(1포기)	0.28
	흰 빵(500g)	0.14
	흰 쌀(1kg)	0.72
	달걀(12개)	0.86
	치즈(1kg)	7.05
	닭가슴살(뼈 없는 것, 껍질 없는 것, 1kg)	3.22
	사과(1kg)	1.20
	오렌지(1kg)	0.71
	토마토(1kg)	0.43
	감자(1kg)	0.42
	물(1.5L병)	0.26
	와인 한 병(중간급)	3.65

구분	항목	가격
	국산 맥주(0.5 liter bottle)	0.79
	수입 맥주(0.33 liter bottle)	0.81
	담배 한 갑(말보로)	2.58
교통비	편도 티켓(지역 교통)	0.21
	1개월 패스권(일반 가격)	12.45
	택시 기본요금(일반)	0.19
	택시 1km(일반)	0.32
	택시 1시간 웨이팅(일반)	6.87
	가솔린(1 liter)	0.70
	폭스바겐 골프 1.4 90KW Trendline	21,026.01
	85m ² 아파트 기본료(전기, 난방, 수도, 쓰레기처리)	35.64
시설이용 (1개월)	핸드폰비 (1분)	0.07
	인터넷(6Mbps, 무제한 데이터, Cable/ADSL)	18.33
스포츠, 레저	휘트니스 클럽(성인 1명 한달 요금)	20.72
	테니스 코트 렌트(1주일에 1시간)	6.34
	영화관(국제 개봉, 1좌석)	2.36
옷, 신발	청바지(리바이스 501)	42.43
	스파매장 여름 원피스(Zara, H&M 등)	41.25
	나이키 운동화	63.95
	남자 가죽 구두	46.10
렌탈(1개월)	방1개 아파트(도시)	169.33
	방1개 아파트(도시 외)	120.19
	방3개 아파트(도시)	323.36
	방3개 아파트(도시 외)	225.52
아파트 가격	도시 아파트 1m ²	870.74
	도시 외 아파트 1m ²	556.45
급여, 자금	평균 월급(세후)	281.39
	연간 대출 이자(%)	6.61

주: 2017년 6월 기준
자료원: NUMBEO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복장

비즈니스 복장문화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며 남성은 어두운 톤의 정장을 착용하고 여성은 비즈니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스커트나 드레스는 무릎아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소매도 팔의 대부분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인사

약수는 튀니지에서 같은 성별끼리 가장 흔하게 하는 인사방법이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인사할 때 먼저 약수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남자는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볍게 약수한다.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예의이며 명함은 아랍어와 불어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아랍어, 영어/불어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좋다.

다. 선물

튀니지 가정에 초대받은 경우, 빵이나 견과류, 과일, 케이크, 사탕, 혹은 꽃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초대받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술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선물은 받은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라. 약속

약속은 항상 약속 날짜 이전에 잡아야 하며 7월과 8월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매우 덥고 금식을 지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속 잡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튀니지에서는 회의 시 문을 열어놓는 것이 관례이며, 회의 중에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종종 토론 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주제의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본래 논의에 집중하도록 재촉해서는 안 된다.

마. 식사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 옆자리에 앉는 것이 관례이며 식사 하기 전에 손을 씻을 수반이 나온다. 남자와 여자는 식사를 따로 하며 남자가 먼저 한 후에 여자가 먹는다. 모든 음식을 한 번씩 맛보는 것이 좋은 식사 매너이다.

바. 문화적 금기 사항

외국인들은 금식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라마단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워서도 안 된다. 프랑스의 영향으로 튀니지

비즈니스맨들도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가철인 여름에는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라마단 기간 중에도 출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이주정착 가이드

가. 전화신청

통신수단은 아프리카, 중동국가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우리 나라와의 전화, fax, 인터넷 e-mail 등 통신이 잘 소통되고 있다(LAN이 일반화되지 않아 인터넷은 모뎀 및 전화선 이용). 호텔 내 전화 및 팩스 사용 시에는 시내 공중전화 또는 가정용 전화보다 약 3배가 비싼 편이다. (튀니스 - 서울 간 가정용 국제전화요금은 1분당 약 3.5달러)

- 튀니지 내에서 우리 나라 호출 ACCESS
- 00(국제전화 코드) + 82(한국) + 지역번호(서울의 경우 2) + 국내전화번호

나. 정부 등록 및 비자취득

무사증 입국

우리 국민은 튀니지에 무사증으로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학 또는 해외지사 근무 등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튀니지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사증 입국 후 체류증을 신청한다.

튀니지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편도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항공사 직원이 비자 또는 체류 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 또는 체류증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발령증 등 튀니지 입국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왕복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유(transit)조건에는 딱히 특별한 것이 없으며 여권 잔여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다. 자동차 구입

한국으로 국산 차량을 주문할 경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유럽 지역으로부터 주문도 가능하다. 중고 차량을 살 경우 4-5년이 된 Peugeot, Volkswagen 등을 5,000~6,000달러에 구할 수 있다. 현지 운전면허 시험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며(필기 및 실기시험)운전면허 발급제도가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철저하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나 완전보험(FULL COVER)인 경우 연 700~800달러이고, 제3자 보험만 들 경우 200~300달러이다. 운전 시 튀니지인은 평소와는 달리 성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 급정거하는 차, 거칠게 끼어드는 차 등을 조심하며 운전해야 한다. 도로에는 차선 표시나 신호 체계가 미비한 편이나, 도로 포장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라. 은행계좌, 병원 등

튀니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아무런 문제 없이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용 계좌로는 ‘convertible currency accounts(교환 가능 통화 계좌)’나 ‘single foreign currency accounts(단수 외화 계좌)’ 등이 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차 계약서와 여권, 그리고 입금할 소액의 돈이 있으면 된다.

다만 모든 예치금액은 튀니지 디나르가 아닌 오직 외화로 입금 및 송금 돼야 하며, 튀니지 디나르의 입금 시(convertible currency account)나 출금 시(single foreign currency account) 외화가 현지 디나르화로 변환된다. 또한 계좌의 종류에 따라 외화 출금(single foreign currency account) 및 현지화와 외화를 모두 출금(convertible currency account)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금액은 모두 세관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 주요 쇼핑센터, 특산물 등

프랑스 까르푸 및 현지 백화점 3개, 중앙시장, 아리아나 시장이 있으나 현지 소비재가 조약한 편으로 식료품 이외에는 구매할 만한 것이 없다.

4. 생활여건

가. 주거여건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으며, 아파트는 임차료가 저렴한 편이다. 최초 계약 시 통상 2년이며 추후 1-2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보통 1년 연장마다 5%가 인상된다.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필히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입주 시 유의 사항으로는 입주 전 가스, 에어컨, 난방기 등의 성능을 사전 체크해야 하며, 상하수도 고장유무, 건물 보존상태, 주위경관, 인근 편의 시설, 방범상태 등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 회수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주택 소유자와의 임차주택상황 및 비품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 후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클 경우 각종 세금(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관리비 등 각종 유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구 등 비품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나, 임차조건에 따라 갓출 수도 있다.

나. 교육여건

교육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미국계, 프랑스계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초. 중. 고 교육 학제

- American School(1곳):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 French School(1곳):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미국학교의 경우 학비가 연 1만 달러(입학금 2,500달러 별도)이 소요되며 프랑스 학교는 초등 연 2,500달러, 중·고등 연 3,600달러가 소요된다. 입학절차는 학교 자체 시험 후 실력에 따라 학년을 배정받는데 필요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카드 등이다.

현지학교가 한국 학제와의 상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프랑스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4년제이며, 미국학교는 여타 국가와 동일하다. 한편, 대학교는 정규 4년제 종합대학은 국립인 튀니지대학 한 곳뿐이며 입학 요건은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합격한 후 대학 본고사를 치뤄야 하는데 아랍어로 강의한다.

다. 의료여건

튀니지의 의료수준은 높은 편으로 건강에 이상 있을 시 가까운 병원 및 약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외국 인에게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편이다. 높은 의료수준으로 알제리, 리비아 등 주변 국에서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종합병원은 아래와 같다.

- Hôpital Charles Nicolle
- 주소: Boulevard 9 Avril 1938, 1006 Tunis,
- 전화:71 262 740

- Hôpital La Rabta
- 주소: La Rabta, 1007 Tunis
- 전화:71 262 083

- Hôpital Aziza Othmana
- 주소: Place du Gouvernement la Kasbah, 1008 Tunis
- 전화:71 560 763

라. 교통 및 통신여건

운전 주행 시 차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앙선 침범 또는 역주행하는 차량도 다소 있다. 튀니지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 도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나, 튀니지인의 운전이 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튀니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은 아래와 같다.

- 버스 일반요금 0.35튀니지 디나르, 거리에 따라 최대 1.5튀니지 디나르
- 전철 일반요금 0.4튀니지 디나르, 거리에 따라 최대 0.7튀니지 디나르
- 택시 기본요금은 0.38튀니지 디나르(야간 0.57튀니지 디나르)
- km당 0.6튀니지 디나르(야간 0.9튀니지 디나르)가 부가되며, 큰 수하물 이동 시 약간의 팁(1튀니지 디나르 미만)을 지불하면 됨.
- 무료 환승은 없음.

튀니지 시내 대중교통 종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튀니지의 대중 교통은 택시, 버스, 지하철(1~6호선), 기차 등이 있음.
- 택시는 노란색이며 모두가 개인 택시
- 버스도 대체로 노란색으로 운전사 이외에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 뒤에서 타고 앞에서 내림.
- 일반 버스보다 약간 작고 흰색에 초록색 줄무늬가 두줄 그어져 있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가격이 비싸(1튀니지 디나르부터 시작) 일반 현지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외국인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 이 버스는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고, 운전사가 모두 처리
- 수도권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운행하는 흰색 버스도 있음.
- 특수 노선인 TGM(아래 사진 참조)이 있는데 해당 노선은 관광지인 항구 도시(라굴레)-전시장(르크렘)-바닷가 휴양지(시디부사이드, 카르타지, 감마르트, 라마르사)등 주요 관광지만으로 노선이 이루어져 있음.

특사 운송회사

특사 운송 회사 서비스들은 튀니지 우체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FEDEX, EMS, UPS, DHL Express
 - 사이트 주소: <http://www.rapidposte.poste.tn>
 - 전화: (+216) 71 888 888
 - 주소: 1, Rue Malaga 2092 El Manar1
- 이용 시간
 - 월-금: 06:00-22:00
 - 토: 06:00-22:00
 - 일: 09:00-15:00
 - 휴일: 09:00-15:00

한국으로 국제전화 가는 법

튀니지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 국제전화00(국제전화) + 82(한국) + 지역번호(서울의 경우 2) + 국내전화번호
- 호텔 내 전화 및 팩스 사용 시에는 시내 공중전화 또는 가정용 전화보다 약 3배가 비쌌(튀니지-서울 간 가정용 국제전화요금은 1분당 약 3.5달러).

인터넷 사용환경

아직까지도 모뎀 및 전화선을 이용하며 접속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속도는 느리다. ISDN 및 전용선 서비스는 가능하다. 현지업체는 LAN 설치 능력이 있으며 라우터, 스위치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대체로 ADSL 모뎀 및 전화선을 이용(최고대역폭: 8Mb)하고 있다.

마. 여가여건

한국처럼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바. 기타여건

식품 조달

한국식품점이 없으며, 파리, 로마, 런던 등 유럽국가 소재 한국 식품점에서 구입 가능하나 운송료가 비싼 편이다. 일본 식품점이나 중국시장도 없다. 쌀, 배추, 무를 제외한 기본 야채류는 현지 구입할 수 있다. 생선, 과일은 싸고 질이 좋은 편이며 한국 식재료, 식품은 본국에서 선편 우편화물(2-3개월 소요)로 부쳐올 수 있다.

이사 화물

선박 및 항공 운송인 경우 큰 문제 없음. 선박을 이용할 경우 한국에서 발송 후 1-2개월경 튀니지에 도착하며 DOOR TO PORT 관례가 있다. 하역 항구(라데스)에서 자택까지 운송료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약 600달러로 약간 비싼 편이며 분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포장 필요하다.

5.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경유

한국에서 튀니지로 이동하는 직항노선은 없으며 이태리의 로마 등 유럽 주요도시를 경유해 입국할 수 있다. 로마에서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지까지는 50분이면 이동 가능(로마공항- 튀니스공항 직선거리 590km)하다. 튀니지로의 항공편 검색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 <http://www.bing.com/travel/flights?FORM=TRABFL>

위 사이트에서 From 에 "Seoul"을 입력하고 To에는 목적지인 "Tunis, Tunisia (TUN) -Carthage Airport"를 입력하면 다양한 항공편을 볼 수 있다. 튀니스 카르타고 국제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는 Air France, Alitalia, Delta, Emirates, KLM, Lufthansa, Qatar Airways, Turkish Airlines 등 다수 있다.

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튀니스 카르타고 국제공항은 수도인 튀니스 다운타운까지의 거리가 6km, 카르타고시 다운타운까지는 8km에 위치하고 있다. 택시 또는 렌터카로 시내로 이동할 수 있다. 택시 이용 시 20분 이내에 다운타운 도착 가능하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나 지하철은 없으나 주요 호텔은 국제공항 호텔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출입국

한-튀 간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1개월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재국 이민법에 따라 3개월까지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다. 무사증 입국 후 체류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튀니지 정부는 튀니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30튀지니 디나르(약 16.6달러)의 공항 출국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8월 28일 자 발효 법령을 10월 1일로 연기해 시행). 이에 따라 2014년 10월 1일부터는 튀니지 출국 시 공항에서 출국세 인지(30튀니지 디나르)를 구입, 여권에 부착 후 출국심사절차를 받아야 한다.

나. 비자(사증)

입국방법

우리 국민은 튀니지에 무사증으로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학 또는 해외지사 근무 등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튀니지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무사증 입국 후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튀니지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편도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항공사 직원이 비자 또는 체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자 또는 체류증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발령증 등 튀니지 입국목적에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왕복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유(transit)는 특별한 조건이 없고 여권 잔여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다.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유학생 체류증

- 발급대상: 튀니지 내 어학원, 학교기관 등의 장기과정(1년 이상)에 등록하고, 주거지가 정해진 자
- 발급절차
 - 무비자 입국 후 어학원 혹은 학교에 장기과정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임차계약 등을 통해 주거지를 정함.
 -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경찰서에 체류증을 신청함.
- 구비서류
 - 여권(신원정보란) 사본 2매
 - 여권에 마지막으로 튀니지 입국 시 찍힌 스탬프 사본 2매
 - 체류증 사진(여권 사진) 4매
 - 체류증 신청서(서명 필)
 - 학원 혹은 학교 등록증
 - 재정 증명 서류

- 주택 임차계약서

※여권 원본은 본인이 소지함.

○ 수수료: 20 튀니지 디나르(약 15달러)

- 체류증 접수 시 인지세 10튀니지 디나르

- 체류증 발급 후 여권 내에 부착하는 인지세 10튀니지 디나르

주재국의 행정시스템상 체류증 발급/연장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해 입국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체류증 신청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usiness(상용) 비자

○ 발급대상: 진출기업 직원(상사주재원 포함), 자영업자

○ 발급절차

- 노동부에 노동허가증(Attestation du travail)을 신청해 발급받음.

-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경찰서에 체류증을 신청함.

○ 구비서류

- 여권(신원정보란) 사본 2매

- 여권에 마지막으로 튀니지 입국 시 찍힌 스탬프 사본 2매

- 체류증 사진(여권 사진) 4매

- 체류증 신청서(서명 필)

- 전년도 체류증 원본(최초 발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허가증(Attestation du travail)

- 집 계약서 사본

- 회사 정관 사본(Status de la Société)

- 회사 관보(Journal Officiel) 사본

○ 동반가족의 경우

- 주 튀니지 한국대사관에서 번역 공증한 가족확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증명서), 체류증 신청자(노동허가증 소지자)가 동사무소에서 공증한 부양 확인증(Prise en Charge) 추가 필요

○ 수수료: 1인당 20튀니지 디나르(약 15달러)

- 체류증 접수 시 인지세 10튀니지 디나르

- 체류증 발급 후 여권 내에 부착하는 인지세 10튀니지 디나르

라.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튀니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휴대품	통관기준
주류	- 25도 미만: 2리터 - 25도 이상: 1리터
담배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향수	- 향수 5병
면세한도금액	- 개인물품, 여행 중 사용할 옷, 화장품, 카메라, 휴대용 기기(라디오, CD플레이어, PC 등) 1대, 판매 목적이 아닌 100튀니지 디나르 이하의 비상업용 선물
외국환신고 (비거주자 외국인)	- 5,000튀니지 디나르의 외환을 휴대반입 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해 입국세관에 신고 - 입국시 휴대 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5,000튀니지 디나르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함
의약품	- 처방전에 언급된 품목 및 수량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식품	- 농산품 중 과일류는 반입 금지 - ※ 채소 및 육류 등은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 무기, 폭발물, 마약, 외설물, 향정신성 약품, 위키토키, 튀니지 화폐, 종교서적, 기타 보건·공공질서·공중도덕에 위해가 되는 물품
기타유의사항	- 골동품 반출 시 문화부 허가 필요 - 튀니지 화폐는 반출도 불가

자료원: 주 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마. 출입국 외환신고

튀니지 출·입국 시 외환신고

- 신고대상 금액: 1만 튀니지 디나르 또는 그 이상 상당의 외환
- 신고대상 금액을 소지하고, 아래와 같이 출·입국하는 경우에 신고
 - 튀니지를 출국하는 경우
 - 튀니지로 입국하는 경우(비행기 갈아타기 위한 출입국 포함)
- 입국 시 신고한 외환 신고 내용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참고: 일반인의 튀니지 중앙은행 발권 지폐 또는 동전의 반출 또는 반입은 금지돼 있음.

비거주자 여행객

- 출국시 5천 튀니지 디나르 이상의 상당금액 소지하는 경우
 - 튀니지 입국 시 세관당국에 외환소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입국 시 가져온 외환을 소지하고 출국 가능함.
- 튀니지 입국시 외환소지 신고내용
 - 입국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하고, 1회 여행에 유효

튀니지 거주자인 여행자

- 할당된 외환 금액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남은 금액은 다른 여행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음. 단, 귀국 시 세관에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귀국 일로부터 7일 이내 은행을 통해 그 남은 외환 금액을 환전한 것을 전제로 함.

7. 관광/호텔/식당/통역

가. 추천 관광 명소 안내

Bardo 박물관

원래는 Bey 왕조시대의 궁전으로 19세기에 축조됨. 마그레브지역 최고 고고학 박물관으로 로마시대 모자이크가 유명하다. 3개층 40개 전시실로 구성돼 있으며 1층 카르타고 유물, 2층 로마 기독교 유물, 3층은 자기, 유리 및 로마시대 모자이크 등 많은 고고학적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Cartage-Roman 유적지

페니키아인이 BC 814년 건설한 카르타고 제국의 수도로 BC 146년 3차 페니키아 전쟁패배 후 초토화 될 때까지 지중해 서부의 제해권을 장악하며 융성을 누렸으나, 현재는 페니키아 항구 유적만이 남아 있다. 카르타고 박물관, 로마 안토니우스 공중목욕탕 등 유적도 볼 만하다.

시디부사이드(Sidi bou said)

튀니스에서 약 25km 떨어진 카르타즈 근교에 위치한 전통적인 튀니지 마을로 푸른색 창문이 하얀벽과 대비돼 인상적이다. 프랑스 은행가 가문의 아랍 음악애호가인 Erlanger 남작이 안달루시아 아랍양식으로 건축한 현 국립 지중해음악센터와 앙드레 지드가 자주 들렀다는 지중해가 바라다 보이는 오래된 카페가 명물이다.

Sousse

BC 4세기경 페니키안이 건설한 튀니지 150km 남쪽의 인구 약 30만의 관광지이다. 해변이 깨끗하고 연중 햇볕이 풍부하다. 60년대 이후 대규모로 개발돼 현재 호텔 95개, 침실수 31,500개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다. 카타콤베, 카스바(성), 대이슬람사원, 메디나르 등이 볼만하다.

El Kantaoui 항구

Sousse 인근 관광구역에 위치한 작은 항구로 요트, 유람선을 탈수 있고 카페, 식당이 모여 있는 유럽 풍으로 개발된 관광지이다.

El Jem

Sousse 남쪽 100km에 위치. AD 2~3세기 건축된 로마 원형경기장으로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로마 콜로세움(43,000명), Capoue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형경기장이다.

Dougga

수도 튀니스 서남쪽 120km 지점에 위치. 로마제국 이전 누미디아왕국의 옛 도시이다. 페니키아 및 로마시대 유적물이 소재하며 튀니스에서 가장 고고학적 가치가 큰 유적지이며, 아프리카 대륙 최고의 로마 유적지임. 원형극장(AD 2C), Temple de Saturn(로마 농업신전), 주피터 신전, 광장, 공중목욕탕 등 유적이 산재돼 있다.

나. 호텔소개

튀니지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관광국가로서 호텔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다양한 수준의 호텔이 있는데 요금은 비시즌(11-3월), 중간시즌(4-5월, 9-10월), 하이시즌(6-8월) 등으로 나뉘어 가격변동이 크다. 유럽 여행객이 많은 하이시즌에는 가격이 높으며 사전 예약도 필수적이다.

참고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현지에 없다

호텔가격은 100불(5성급), 70불(4성급), 50불(3성급) 정도이다.

호텔가격 및 예약가능 여부는 아래 국제적인 여행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 Travelocity(<http://www.travelocity.com/Hotels>)
- Expedia(<http://www.expedia.com/Hotels>)
- Priceline(<http://travels.priceline.com/hotels/?plf=pcIn>)
- Hotel.com(<http://www.hotels.com/>)
- Hotelplanner(<http://www.hotelplanner.com/>)
- Bookingbuddy(www.bookingbuddy.com)

※ 호텔은 물론 레스토랑, 렌트카 등도 검색 가능함

다. 주요 식당

일본식당과, 중국식당이 튀니지 시내에 각각 1-2개 있다. 그 동안 한국 식당은 계속 없었는데, 2012년에 Le Bambou라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이 개업했고, 주방장 겸 사장이 KOICA 봉사단원 출신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음식이 전체 메뉴의 약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튀니지의 레스토랑은 상기 호텔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다. 튀니지 현지음식점 이외에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나 이태리 음식점이 많은 편이다.

튀니지에서 공식적인 경우 식사는 서양식으로 진행되며 아페리티프 → 전식 → 본식 → 후식 → 차 순이다.

대표적인 튀니지 전통음식은 쿠스쿠스, 양고기요리, 생선요리, 브릭(반숙 계란을 넣은 튀김요리), 하리사, 케밥, 샌드위치 등이다.

튀니지 시내 주요 레스토랑은 아래와 같다.

프랑스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L'ASTRAGALE (Tunis)	Cite Jardins, Tunis	+216 71 785 080
AU BON VIEUX TEMPS (La Marsa)	1. Rue Abou Kacem Chebbi, Tunis	+216 71 744 733

튀니지 전통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DIWAN DAR EL JELD (Tunis)	10, Rue Dar El Jeld, La Medina	+216 71 560 916
EL MAWEL (Tunis)	5 Rue Lamine Abassi	+216 71 791 406

프랑스-튀니지 식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LE CARTHAGE (Tunis)	Rue Ali Bach Hamba	+216 71 255 614 / 71 351 772
DAR BEL HADJ (Tunis)	Rue du Tamis	+216 71 200 894
LA VERRERIE(Tunis)	Le Forum Lac de Tunis	71 860 352 / 71 860 994

퓨전 아시아-한국식 2

식당 명	위 치	전화번호	상세 정보
Le bambou (Tunis)	Av. Hédi Nouira Résidence Syrine Cité Ennasr 2, 1001 Tunis, Tunisia	+216-(0)70 834 534	- 한식 메뉴가 전체의 35%. - 한국인 셰프가 주인

8.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터

노란색 공공버스 일반 요금은 0.54튀니지 디나르이며, 거리에 따라 최대 0.7튀니지 디나르이다. 흰색 사기업버스 일반 요금은 1.2튀니지 디나르이며, 최대 요금은 1.4튀니지 디나르이다. 전철 및 트램 일반 요금은 0.54튀니지 디나르이며, 거리에 따라 최대 0.7튀니지 디나르 정도이고 무료 환승은 없다. 장거리 TGM의 요금은 0.63튀니지 디나르이며, 최대 요금은 0.8튀니지 디나르이다. 택시 기본 요금은 0.45 튀니지 디나르(야간 0.58튀니지 디나르), 1km 당 0.53튀니지 디나르(야간 0.68튀니지 디나르)가 부가되며, 큰 수하물 이동 시, 1튀니지 디나르 미만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무료 환승은 없으며 야간 요금 적용시간은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이다.

튀니지 시내 대중교통 종류 및 특징

튀니지의 대중 교통은 택시, 버스, 지하철(1~6호선), 기차 등이 있다. 택시는 노란색이며 모두가 개인 택시이며, 외국인도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주로 활용한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먼저 목적지와 목적지에 따른 값을 먼저 부르고 타야 한다. 값을 부를 때는 낮은 가격부터 부르고 내릴 때 값을 다시 올려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버스도 대체로 노란색으로 운전사 이외에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뒤에서 타고 앞에서 내린다. 일반 버스보다 약간 작고 흰색에 초록색 줄무늬가 두줄 그어져 있는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가격이 비싸(1튀니지 디나르부터 시작)일반 현지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고, 외국인들이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 버스는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고, 운전사가 모두 처리한다.

수도권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운행하는 흰색 버스도 있다. 특수 노선인 TGM(아래 사진 참조)이 있는데 동 노선은 관광지인 항구 도시(라굴레)-전시장(르크렘)-바닷가 휴양지(시디부사이드, 카르타지, 감마르트, 라마르사)등 주요 관광지만으로 노선이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은 대중교통수단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택시요금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

나. 여행경보 단계 경보 등 주의사항

튀니지의 치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1년 들어 민주화 시위 사태의 영향으로 악화됐다.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로 대통령이 사우디로 망명(2011년 1월 14일)했으며,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다. 2011년 초에는 일부 지역에서 약탈 및 방화 등 일탈 행동이 다수 목격됐다. 최근 들어 안정화돼 가고 있으나 치안상황은 매우 가변적이다. 강력 범죄는 많지 않지만 좀도둑 등 경미한 범죄는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은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에 들어 헌법 및 선거법 채택 등으로 튀니지 정세가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산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튀니지 내에서는 항상 테러 사건 발생 가능성을 유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2014년 5월 27일 10여 명의 무장 테러조직이 튀니지 중서부 Kasserine주에 소재한 Lotfi Ben Jeddou 내무부장관의 자택을 공격해 경찰관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5년 3월 18일 튀니지 Bardo 국립 박물관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2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발했다. 그 중 20명이 외국인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2017년 5월 17일) 튀니지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한 달 추가연장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비상사태를 유지해 오느튀니지는 2017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5년 말 수도 튀니스에서 대통령 경호원 수송버스를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12명이 숨지고 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튀니지 보안군과 경찰은 용의자 체포와 조사에 관한 권한을 더 부여받았고 당국은 집회 시위와 야간 통행, 언론 보도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2015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탑승 관광버스 폭파사건에서와 같이, 우리 국민의 위험지역 관광은 자칫하면 테러조직으로부터 테러대상으로 지목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 위험지역인 튀니지 남부 사막지역(Nefta, Tozeur, Zarzis, Medinine, Douz 등)과 북서부 알제리 접경지역(Kasserine, le Kef, Jendouba 등)은 가급적 방문이나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알제리를 황색경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 지역

튀니지 남부 사막지역(Nefta, Tozeur, Zarzis, Medinine, Douz 등)과 북서부 알제리 접경지역(Kasserine, le Kef, Jendouba 등)을 포함한 튀니지 내륙지방이 위험지역이다. Kasserine 마을을 포함한 Mont Chaambi 국립공원 지역과 군사지역인 El Borma, Dehiba 남부 및 Aatouine 지역 또한 위험지역이다. 가능한 알제리 수도 알제를 벗어나는 경우,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굳이 육로로 이동할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에스코트를 밟도록 한다.

팁 제도

튀니지 국민 간에는 거의 팁을 주지 않으나, 외국인의 경우 약간의 팁 제공 시 환대 받는다(호텔, 이발관, 식당 등).

9.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 단체 및 기관

- 튀니지 정부 웹사이트: www.ministeres.tn
- 외무부 웹사이트: www.diplomatie.gov.tn
- 행정분야 원격 정보, 통신 사이트: www.sicad.gov.tn
- 튀니지 행정 포털 사이트: www.bawaba.gov.tn
- 국영시장 사이트: www.marchespublics.gov.tn
- 기술협력 분야 사이트: www.tunisie-competences.nat.tn
- 우체국 사이트: www.poste.tn
- 세관 사이트: www.douane.gov.tn
- 전기, 가스 회사 사이트: www.steg.com.tn
- 국립 민간보호청 사이트: www.onpc.nat.tn
- 일기예보 사이트: www.meteo.tn
- 튀니지 국가정보: www.tunisie.com
- 튀니지 중앙은행: www.bct.gov.tn
- 튀니지 민영화 관련정보: www.tunisieinfo.com

나. 언론 단체

- 프랑스어 일간지
- <http://www.letemps.com.tn/>
- <http://www.lapresse.tn/>
- <http://www.realites.com.tn/>

다. 비상연락처

- 현지 경찰서 대표번호 : 197
- 현지 소방서 대표번호 : 198
- 현지 응급병원 대표번호 : 190

라. 한국기관 및 한인 단체

구분	주소	전화번호
대사관	Ambassad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3 Rue de l'Alhambra, Mutuelleville, B.P.297, 1002 Tunis	(216) 71-799-905 / 71 893 060
한인회	36, rue Charles de Gaulle, Tunis, Tunisie	20-336-057

마.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등

- 튀니지 투자정보: www.investintunisia.tn
- 튀니지 통계청(INS): www.ins.nat.tn
- 전국통계위원회(CNS): www.tunisie-statistiques.tn
- 튀니지 기업정보: www.tunisianindustry.nat.tn
- 튀니지 공업 무역 수공업 연맹: www.utica.org.tn
- 튀니지 무역진흥청: www.cepex.nat.tn
- 산업현황: www.commerce.gov.tn
- 튀니지무역보험공사(COTUNACE): www.cotunace.com.tn
- 튀니지상공회의소: consultation.oct.nat.tn
- 튀니지 에너지정보: www.anme.nat.tn
- 튀니지 국제환경기술센터: www.citet.nat.tn
- 국제박람회정보: www.fkram.com.tn

10.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구 분	일 자	내 용	비 고
무역관 개설	2000. 7. 1.	알제무역관 개설	개설요원 송선근 초대 관장 ※ 공관의 상무관실로 등록
관할지 확대	2001. 1. 1.	튀니지지역 관할	본사 관할지조정
무역관 이전	2002. 5. 1.	관옥 이전	주알제리한국대사관에서 Hydra 소재 관옥으로 이전
2대 관장 부임	2004. 2. 1.-	관장 최동호	
무역관 이전	2007. 5. 1.	관옥 이전	Val d'Hydra 소재
3대 관장 부임	2008. 2. 1.-	관장 이규선	센터장으로 직함 변경
4대 관장 부임	2010. 8. 1.-	관장 양인천	다시 관장으로 직함 변경
무역관 이전	2012. 5. 1.	관옥 이전	Hydra 소재
5대 관장 부임	2013. 2. 1.	관장 김명희	
6대 관장 부임	2014. 8. 1.-현재	관장 조기창	

나.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KOTRA, Alger(Korea Business Center, Alger) Section Commerciale de l'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Rue No 06 Lot Piette, Paradou Hydra, 16016, Alger, Algerie
- 전화: +213-23-48-58-43 / +213-23-48-58-44 / +213-23-48-58-48
- 팩스: +213-23-48-58-42
- 이메일: haksoon@kotra.or.kr (김학순 과장)

다. 인원현황

무역관명	개설	법적 지위	인원현황(명)			T/O외 관리인원
			본사	현지	계	
알제	2000. 7. 1.	공관부속기관	2	5	7	용역 2



KOTRA 국가정보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4유형의 개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유형별 항목 설명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00년 작성해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000)를 이용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동 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동 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집·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